

영면 눈물보인 文대통령 "편히 쉬십시오" '홍범도 장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홍범도 장군의 귀환은 어려운 시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위기극복에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장군이 고향 흙에 흘린 눈물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고 뜨거운 나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홍범도 장군님, 잘 돌아오셨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군은 우리 민족 모두의 영웅이고, 자부심이다"며 "나라를 잃은 굴종과 설움을 씻고, 식민지배에 억압받던 삼천만 민족에게 강렬한 자존심과 자주독립의 희망을 심어주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국을 떠나 만주로, 연해주로, 중앙아시아까지 흘러가야 했던 장군을 비롯한 고려인 동포들의 고난의 삶 속에는 근현대사에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온갖 역경이 고스란히 배어있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눈시울이 붉어진 문 대통령은 "우리는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히 부심해야 한다"며 "선조들의 고난을 뒤돌아보면서 보란듯이 잘사는 나라,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중



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며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뤘고, 드디어 선진국으로 도약했다"며 홍 장군에게 보고하듯 말했다.

홍 장군의 유해는 이날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 안장됐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카자흐스탄에서 고국 품으로 돌아온 홍 장군 유해는 당일 밤 늦게 이곳에 도착, 16~17일 이틀간 국민 추모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안장식엔 문재인 대통령 내외, 특사단, 정당 대표, 국방부 장관, 각급 참모총장, 여전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남양 홍씨 문중 대표, 대한 고려인협회장, 고려인 등이 참석했다. 국민대표 자격으로 특사 임무를

수행한 조진웅 배우가 사회를 봤다. 16~17일 이틀간 대전현충원 현충관에 임시 안치되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영정을 모신 남양 홍씨 문중 대표를 선두로 국방부 의장대에 의해 독립유공자 3묘역으로 이동했

다. 이날 헌화를 위한 추모 화환은 카자흐스탄의 추모화인 카네이션과 우리나라 추모의 상징인 국화를 함께 활용해 제작함으로써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의 정신적 뿌리로 자리매김하셨던 홍범도 장군을 추모하는 데 더욱 의미를 더했다.

가수 하현상의 추모 노래공연(드라마 '미스터선샤인' 수록곡 바람이 되어)을 끝으로 추모를 마치고 묘소로 옮겨진 유해는 국방부의 장대에 의해 관포 태극기가 해체됐고, 이 태극기는 특사단 자격으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온 여전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우원식 의원에게 전달됐다.

유해 하관 후 문 대통령 내외는 17일 오전 홍범도 장군 훈장 추서식에서 카자흐스탄 토크예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현지 홍범도 장군 묘역의 흙을 대한민국의 흙과 함께 허도하며 안장식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양국은 카자흐스탄에 남아 있는 홍범도 장군의 묘역 역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 고려인 사회의 정신적 명맥을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밝혔다.

최광수기자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솔라시도 기업도시 서남권 관광 허브로 육성

서남권 관광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해남군 대규모 사업들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18일 지역 관광개발사업을 현장점검하고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남군 화원면 오시아노관광단지와 산이면 구성지구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방문했다.

현장방문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명현관 해남군수, 김병덕 해남군의회 의장 등이 동행해 사업 추진 현황 보고와 함께 주요시설 현장 시찰을 실시했다.

해남군 화원면에 위치한 오시아노관광단지는 '한국의 페블비치'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해변 경관에 골프장, 캠핑장 등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서남해 거점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지난 1992년 507만3000여㎡ 규모 관광단지 지정, 2012년 골프장 및 단지 내 도로, 부지조성이 완료됐으나 골프장외에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민자유치 등 사업추진이 지체돼 왔다.

특히 지난해 끈질긴 노력 끝에 30여년만에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국비 예산을 확보, 민자투자의 걸림돌이 되었던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활성화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내년 공사 착수를 목표로 하수처리장 기본조사 및 설계 실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한국관광공사에서 120실 객실과 인피니티 풀, 연회장, 전망카페, 레스토랑, 키즈풀 등 부대시설을 갖춘 오시아노 리조트 호텔을 2023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수려한 해변경관과 연계한 매력적인 숙박시설로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도 전라남도 블루이코노미의 일환인 전남형 스마트블루 시티 개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632만평(2,090여만㎡)에 일자리·관광·주거·교육·의료 등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말 1차로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들 중



심으로 한 98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됐다. 솔라시도CC 골프장 18홀은 오는 27일 개장할 예정이다.

이곳은 산업단지 전체의 전기를 100%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전용시범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복합문화공간인 16만평 규모 산이정원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산이면 대전리에서 영암군 삼호읍을 잇는 왕복 4차선의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올해말까지 완료 예정이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정원도시, RE100도시, 언택트 도시, 자율차 도시라는 4대 도시비전을 가지고, 도시에 필요한 전기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공급받는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을 통해 전남도는 기존 사업부지 외에 부동리 일원 등 약 52만평에 대한 개발구역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해남 서부권의 관광 활성화는 국EH 77호선 마지막 미연결 구간인

해남 화원~신안 암해를 잇는 도로공사가 본격 추진되면서 더욱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해남 화원~목포 달리도 2.73km 해저터널을 포함해 총연장 13.49km가 연결되면 서해안고속도로, 무안 국제공항고속도로와 연계해 관광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남군은 목포구등대~양화간, 화원 후산~장수간 해안도로 건설공사를 추진중으로, 화원 매월리를 시작으로 목포구등대~장수리~오시아노 관광단지까지 해안도로를 잇는 인프라인 구축된다. 이 구간은 서남해의 보석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해변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서남권을 대표하는 절경의 해안도로가 탄생할 전망이다. 국도77호선 연결도로는 오는 9월 착공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달에는 인접한 해남 우수영의 스카이워크와 해상케이블카가 개통할 예정으로,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와 솔라시도 기업도시, 우수영 울돌목 등 해남지역 관광자원을 비롯해 목포신항과 서해안 고속도로, 완도·신안의 해양관광지 등이 연계된 전남 서남권이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황희 장관은 "화원 오시아노 관광단지와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향후 전라남도 서남권 관광의 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사업 추진현황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명현관 군수는 "서남해의 보석, 해남은 그동안 수많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땅끝이라는 한계에 머물러 산업발전의 정체를 겪어왔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하나되어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해남의 미래 발전상을 구상하는 중대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양영율기자

한국도자재단, 202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주제로 '다시 쓰다 Re:Start' 선정



전세계 도자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연결하는 '문'과 '화합' 강조한 공식 포스터도 공개

한국도자재단이 10월 1일 개막할 '202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KICB)'의 주제를 '다시 쓰다 Re:Start'로 선정하고,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

재단은 이번 주제 선정 이유로 20년을 맞이한 경기도자비엔날레의 과거와 '포스트 코로나' 이후 도자의 역할·의미를 짚어보고 예술적 기여를 통한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흙', '불', '흔' 등 도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제를 내세웠지만 올해는 새로운 시도와 제작 과정을 표현하고 작품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내용을 담겠다는 취지다.

이어 행사의 공식 포스터 디자인을 보면 전 세계 도자들이 모여 함께 하기 위한 공간으로 향하는 '문'을 상징하고 '화합'의 의미를 표현했다. 특히 디자인 형상은 이번 국제공

모전에 참여한 작가들의 출신지가 4개 대륙이라는 점에 착안, 그들의 조화와 화합의 의미를 두기 위해 특정 대륙이나 색깔을 부각하지 않고 다양한 질감과 색감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표현했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에 공개한 행사 주제와 포스터는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방향성과 함께 향후 도자 예술의 고민과 새로운 시도라는 과제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경기도자미술관(이천), 경기생활도자미술관(여주), 경기도자박물관(광주) 일대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모든 전시는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재단은 이를 구현할 온라인 플랫폼을 완성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위한 국제공모전에는 70개국에서 1,184명의 작가가 2,503점을 접수했다. 재단은 지난 12일 국제공모전 수상작 6점을 선공개한 바 있다.

최정근기자

양기대·문정복 의원 "민주당 대선공약으로 추진"

박원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광명·시흥 신도시에 전기차 집적단지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원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8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 문정복 국회의원(시흥)과 박승원 광명시장,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전기차 관련업계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민주당 차원의 정책 추진이 본격화된 것이다. 박 의원은 환영사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에 3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로 추진하고자 정책위 주관 간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명·시흥 신도시 내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를 최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당에서도 적극 받아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양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좋은 제안들이 나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육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민주당 대선 정책 공약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문 의원은 "광명·시흥 신도시가 수소차,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 메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도권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에 30만평 이상의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가 들어선다면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에 유리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 반도체 등 관련 산업기술 육성은 물론 물류 배송 등 전기차 산업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지난 6월 초 민주당 초선의원들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에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최정부/기자

윤준병 의원,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체계화법' 대표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9일,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요망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 및 점검, 신고사건 처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은 사업장과 산업재해 발생,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감독을 비롯한 검사와 점검 또는 신고사건 처리 이후의 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현행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업종·규모별 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 결과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서 보다 체계적으로 구분·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입력·관리 과정에서 사업장의 정보가 일부 누락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근로감독·신고사건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와 지역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반복되는 산재사고로 인한 '죽음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비극적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산업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행법상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해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근로감독·신고사건의 종류와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 및 지역 등 세부적인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부가 산재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전남도의회 조옥현 도의원, "사회적가치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통한 전남공동체 상생발전 이끌어야"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18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사)상생나무 사회적경제센터장, 전남광역자활센터장 등 유관기관과 김복곤 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장, 정송임 전남마을기업협의회장, 류세택 전남자활기업협회장, 이창환 전남상사 이사장 등 도내 10곳의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6월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강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청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비율을 5%이상으로 상향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과 상생나무 정총복 사회적경제센터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강화와 민관협력체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옥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마주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이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4월 전라남도

이에 조 의원은 "올해 6월 기준으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1842개에 이른다"며 "외형적 성장은 이루어졌지만 내실있는 성장이 뒷받침되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판로 및 상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확대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옥현 의원은 "오늘 주신 의견들과 요청사항들에 대해 도의회와 함께 전남도 및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이 최대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사회적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견고한 성장을 통해 전남이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다함께 내실있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간담회를 마쳤다.



김영안/기자

장철민 의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막고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 도모"

1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환경노동위원회)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약용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현행 구직급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단기 취업만을 통해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해가는 구직급여 수급 약용 행태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년 이하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을 5년간 2회 이상 반복한 수급자는 29만 5,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5년 사이 21.3%가 증가했다.

이러한 구직급여 반복수급은 노사 간 단기 계약만 지속시키는 왜곡된 계약 관행 고착화 및 보험 기여에 따른 수혜 수준과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심

각하게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5년 내 2회 이상 서로 다른 수급자격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구직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반복수급의 경우 최대 4주의 대기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해 구직급여 반복수급 약용을 막고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목적이 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피한 △단기·일용근로자·단기예술훈 등에 해당할 경우,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 제외해 반복수급에 따른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반복수급 관련 횡

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된다.

장철민 의원은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도덕적 해이, 일명 '메뚜기 실직자'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보험 가입자 간 수혜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구직급여 수급에만 의존하는 왜곡된 관행이 고착화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구직급여가 실직자의 재취업과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보험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동 법안은 장철민 의원인 대표발의하고 고영인, 노용래, 박영순, 송옥주, 안호영, 오영환, 이상현, 장경태,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원호/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dalyculture.kr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평택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우/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정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 부: 내선 (112) 문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 가50146 사 회 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 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 집 직: 02) 2612-2959
팩 스: 02) 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봉담자이 라피네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구키프 어린이기자단' 모집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40여명 ... 이달 29일까지 영화제 홈페이지 통해 접수

(사)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제2기 '구키프 어린이 기자단'을 모집한다.

'구키프 어린이 기자단'은 매월 사회 이슈, 학교 문제, 직업 탐험, 영화 평론 등 새로운 주제를 어린이의 시각에서 직접 취재해 관련 기사를 작성한다. 작성한 기사는 정기 소식지 구키프 뉴스로 발행된다.

이와 함께 2022년에 열리는 제10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에 참석해 영화제의 생생한 모습도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모집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40여명이다. 신청을 원하는 어린이는 이달 29일까지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어린이 기자단에는 모자, 배지, 기자증 등 기념품이 지급된다. 활동기간은 내년도 5월까지며, 활동 종료 후에는 인증서와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우수기자에게는 표창과 소정의 상품도 수여된다.

김한기 집행위원장은 "어린이들이 지닌 관심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이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의 궁극적 목표다"며 "구키프 기자단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그 생각이 전 세대에 전해져 세대 간의 소통을 이끌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2021 강남구 반려견 행동교정 아카데미

신청기간	2021. 8. 18. (수) ~ 9. 8. (수) (3주간)
신청대상	반려견 행동교정을 원하는 강남구민 (*동물등록된 반려견에 한함.)
교육비	무료
선정방법	면담을 통해 15가구 선정
면담일자	2021. 9. 10. (금) 13:00 (온라인 직접 면담) - 반려견 문제행동에 대한 경우의 양육태도 개선 의지 등 확인, 면담일정 변경시 별도 통보
면담장소	강남구청 본관 3층 제2작은 회의실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jeongri@gangnam.go.kr)로 신청 - 강남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교육기간	2021. 9. ~ 11. 1시간씩 총 2회(일주일간격)
교육시간	신청 후 운영사와 1:1 시간 조정
장소	자택 또는 원하는 장소 - 운영진은 가장 익숙한 장소인 차에서 문제행동을 가장 많이 보여, 교육 효과 극대화 - 집 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근처 공원 등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교육 가능
기타문의	☎02-3423-5520

강남구, 우리 강아지 문제행동 '걱정말게'

'기본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가 다음달 9일까지 '반려견 행동교정 아카데미'에 참여할 보호자들과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구는 반려견의 문제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행동교정 교육을 마련했으며, 물건을 물어뜯는 버릇과 공격 및 짖음 등의 문제행동에 따른 맞춤형 전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자택 또는 원하는 장소에서 2주 동안 전문 동물훈련사와 1:1로 진행된다. 반려견의 문제행동에 고민하는 구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메일을 통해 참여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 동물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내달 13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운영되는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반려동물관리전문가·반려동물유지지원교사 민간자격증 취득과정 ▲수의테크니션, 애견미용, 동물행동교정 등 이론·실습 교육 ▲반려동물 관련 업종 취·창업 연계 지원으로 구성됐다.

수강료는 10만원이며, 교육과정 70% 이상 수료 또는 취업·창업 시 전액 환급해준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한국반려동물 교육원 블로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동희/기자

노원구, 노원에코센터 '플라스틱 없는 하루 살아보기' 도전해요!

서울 노원구가 노원에코센터에서 오는 지구 프로젝트로 '플라스틱 없는 하루 살아보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 하루지만, 8월 중 하루 동안 플라스틱 없는 생활을 실천해 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경험해보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실천 대안들을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함이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노원에코센터 공지사항의 '2021 웃는 지구 프로젝트 플라스틱 없는 하루 살아보기' 또는 네이버밴드 노원에코센터에 접속해 사진과 설명명 3컷 이상을 게시하면 된다. 참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다양한 예시들을 게시했다.

제안 형식에 맞게 후기를 올려준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세척이 간편한 실리온 빨대를 증정한다. 증정기간은 9월 4일, 11일, 18일 10시~11시이며, 노원에코센터 1층에서 받을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기후변화와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소배출의 주범이자 생태계 교란의 원인으로 꼽히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음식 포장 및 배달 문화가 확산으로 1회용 플라스틱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들이 쓰레기 줄이기 문화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최근 지역 내 사회적 경제기업과 손을 잡고 무포장 가게 '새록'을 운영하는 등 쓰레기 줄이기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스토어36.5 새록'(노원역 지하상가), '행복중심 새록(공릉동)', '마을과 마디 새록(노원구 화랑로 464)', '되살림가게 새록(당고개 인근)' 등 총 4곳의 새록 가게는 재사용 및 자연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상품을 포장 없이 판매할 뿐 아니라, 매장별로 특색 있는 친환경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지금 당장 플라스틱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하고, 한번 더 쓰는 습관을 통해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도시 노원을 구축해가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서대문 푸드플랜 기자단 먹거리 현장 속으로 달려간다

제1기 푸드플랜(먹거리종합계획) 기자단 모집

서대문구가 푸드플랜(먹거리종합계획) 정책 홍보와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푸드플랜 기자단을 모집한다.

인원은 총 5명으로 취재·인터뷰 기자 2명, 사진과 카드뉴스, 영상 제작 분야에서 각 1명씩이다.

먹거리 현장 취재나 인터뷰를 통해 글쓰기가 가능한 주민, 사진과 카드뉴스, 영상 제작이 가능한 주민 등이 응모할 수 있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과제물과 함께 이달 23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내면 된다. 서류와 면접을 거쳐 선발되면 다음 달 초 발대식과 역량강화 교육을 거쳐 1년 동안 안전한 먹거리 인식 제고와 먹거리 관련 인물 등에 대해 취재하고 관련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홍보 활동을 하게 된다.

기자단에게는 위촉증 수여, 역량강화 교육, 먹거리 통합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실명 기사 게재, 소정의 활동비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구는 기자단이 비대면 시대에 푸드플랜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사회적경제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상순/기자

서초구,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위해 총력 기울여

서울 서초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의 '약자와의 동행 프로젝트' 일환인 이번 소상공인 대표적인 지원사업은 ▲디지털 전환 교육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 ▲우리동네 맛집 컨설팅 등 3가지다.

구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온택트 환경에서 급변하는 소비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현장지원' 사업을 지역 내 골목상권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점포별 '모바일 명함'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전문 큐레이터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하고 있다. 또, 라이브커머스 홍보 및 소셜미디어 채널에 점포들의 정보를 노출시켜 골목상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QR코드 디렉토리북도 함께 제작해 지역주민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폐업한 사업체 대표자에게 50만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8월12일 기준 417개소에 지급되었다. 당초 6월 7일까지 폐업한 업체에 한정적으로

지원했지만 올해 11월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우리동네 맛집 컨설팅' 사업이다. 민·관·공 지역협의체에서 선정한 '방배역 먹자골목' 소재 의식업체 20개소를 선정해, 이달부터 신용보증재단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외부 전문가에서 컨설팅을 진행한다. 예비 진단 및 경영 지도사가 직접 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 현황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지역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 체험단이 맛과 서비스를 평가해 컨설팅 지원 방향을 설정한다.

한편 구는 올해 4월에 구성된 약자와의동행 T/F팀을 구성해 총 7개 분야 44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구는 각 사업별 성과분석 및 간담회를 통해, 민원사항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해 감감이 복지 없이 계속해서 현장에 맞춰갈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로 깊어진 양극화의 그늘 속에서 시름하는 소상공인 등 약자의 한숨을 커져만 가고 있다"며, "그 한숨을 듣고 눈물을 닦아주며 희망의 불빛을 밝히기 위해 '약자와의 동행'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플라스틱 없는 하루 살아보기

만드는 데 5초 사용하는 데 5분 분해되는 데 500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연간 132.7kg) 세계 3위

밴드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을 물고기가 먹고,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는 우리 식탁에 오른다. 한 달 동안 우리가 먹는 미세 플라스틱이 신종카드 1장 분량

플라스틱 없는 하루를 살아보며 플라스틱이 가져다 준 문명의 발달 속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동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여기간: 8월 중 하루 동안 플라스틱 없는 생활을 실천하는 모습과 대안 찾는 방법들 사진과 설명으로 공유 (사진과 설명 3컷 이상)

참여방법: 1회용 밴드 노원에코센터 <https://band.us/@nweco400> (플라스틱 없는 하루 살아보기)에 신청 후 참가

참여선물: 개인드린 명함, 가게 후기용 플라스틱 명함, 제작이 간편한 실리온 빨대 등 드립니다.

증정기간: 9월 4일, 11일, 18일(토) 10시~11시, 노원에코센터 1층

영등포구, 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 추가 실시

영등포구가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되자 관내 사업체들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해 용자지원 대상 업체를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용자 규모는 약 27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7월 말 기준 150여 개 업체에 용자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덕분에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사업체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됐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 대상은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영등포구 내 공장등록 한 사업자, ▲영등포구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내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등은 우선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 산업 등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그 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용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용자 받고 상환 중에 있거나 사치·향락·유혹·퇴폐 업종, 금융·보험·부동산·연금업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올 12월까지 용자금리를 연 0.8%의 저금리로 인하했다고 전했다.

용자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에서 담보 여력(부동산, 신용보증서)을 확인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제출 서류, 심사 조사 등 검토를 통해 용자대상으로 적합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9월 중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빠르면 10월 초 용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더 많은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용자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추가 모집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저리 용자지원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용산구, 청년와이낫(Whynot?)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용산구 청년실태조사 보고서(2020.11.)에 따르면 창업을 고려한 청년 중 실제 창업을 한 경우는 8.5%에 불과해 창업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30세대 가장 큰 화두는 취업과 퇴사로 창업·이직을 위한 청년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서울 용산구가 창업·이직을 원하는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 와이낫(WHY NOT?)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일환이다.

'청년 와이낫(WHY NOT?) 프로젝트'는 청년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원정대'와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을 위한 '이직원정대'로 꾸러졌다.

먼저 창업 원정대는 정부지원 사업 활용팀, 사업·투자 계획서 작성법, 투자 유치방법 등의 교육을 받는다. 교육 이수 후에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법률 등 분야별 컨설팅, 모의 투자 대회를 통한 시장성 검증의 기회도 제공한다.

이외로 이직 원정대는 퇴사 시 고려할 점, 포트폴리오 작성법,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방법 등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별 포트폴리오 컨설팅과 모의면접을 체험한다.

구 관계자는 "청년 대상 취업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미취업자인 사회 초년생에 집중돼 있다"며 "창업과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것"이

라 밝혔다. 참여대상은 용산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모집인원은 80명이다. 모집기간이 종료되면 내달 6,7일 서류 심사 후 9월 8일 최종 참가자를 발표하고, 교육 장소는 추후 통보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운영사무국 이메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통 구비서류는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 참여 의사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이다. 창업원정대는 창업 아이템 개요, 이직원정대는 지원동기 및 이력서,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용산은 전체 인구 23만명의 24%가 청년으로 인구 감소 추세에도 청년인구가 늘고 있는 이례적인 자치구"라며 "청년들이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구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구는 정부·서울시보다 1년 빠르게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 2020년 청년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전담팀을 신설했다. 자치구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으로 시 예산 2억3천만원을 확보했다. 와이낫 프로젝트 외 올해 추진 중인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으로는 ▲청년1인 가구 알아두면 쓸데 있는 청년잡학사전 ▲청춘3길 탐방 프로젝트(청춘 알아두길, 청춘 아름답길, 청춘 행복하길)가 있다.

최만식/기자

도봉구, '세대이음 기후변화대응교육'과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 재인증

도봉구의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과 '세대이음 기후변화대응교육' 사업이 2021년 7월 20일부터 2024년 7월 19일까지 3년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로 재인증되었다.

이에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8월 18일 구청 소통협력실에서 두 사업의 관계부서 직원들과 새로이 인증된 현판과 인증서를 전달받고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재인증에 따라 도봉구는 인증기간 동안 관련 문서 및 홍보물 제작 시 공식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 및 컨설팅, 유네스코 산하 국내외 네트워크 참여 등 사업의 발전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2011년부터 '유네스코 ESD 공식프로젝트



트 인증제'(Korean UNESCO ESD Official Project, 이하 ESD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은 공공민간 기관과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

회에서 실천되고 있는 다양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중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도, 사업의 독창성 등이 우수한 사례들에 부여된다.

도봉구는 2018년 첫 인증 이후 3년 동안 추진해온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과 '세대이음기후변화대응교육' 2개 프로젝트에 대하여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난 4월 유네스코에 제출한바, 지난 7월 초 두 프로젝트에 대한 3년간의 재인증(2021. 7. 20. ~ 2024. 7. 19.)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도봉구는 이번 공식 인증으로 말미암아 지속가능발전도시로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도봉형 프로그램들이 국제 사회에 널리 소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양천구, '마음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사업' 운영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비용을 지원합니다.

어떤 서비스 인가요?

- 심한 스트레스, 우울감 등 기타 심리적 어려움이 있으면 분에게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용을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에 부담
- 최대 3회까지 지원됩니다.
- 유가족을 위한 심리지원도 가능
- 약 처방을 받지 않고 상담 및 상담명령을 경우 정신과 진료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시민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별도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 거주지 보건소(주민등록상)에서 지정된 정신의학과 병의원에 사전예약 후 이용합니다.
- 100여개 정신의료기관에 참여

더 자세한 것은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 보건소 별 안내전화 및 참여의료기관 안내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안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코로나19 시대에 우울증, 심리적 스트레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연령대를 불문하고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기에 양천구가 '마음건강 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을 통해 구민들의 소중한 마음건강 지키기에 나섰다.

'마음건강 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만 19세 이상의 양천구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우울감,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이 관내 지정 정신의료기관(7개)에서 검진, 상담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에 한해 1인당 연 3회 최대 8만 원의 정신건강검진료를 지

원한다.

다만, 이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있거나, 1년 이내 본 사업에 참여하였던 구민은 제외된다.

진료를 원하는 구민은 지정 의료기관에 사전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 상담이 끝나면 보건소에서 해당 기관에 검진비용을 지급한다.

구는 정신건강검진료 지원을 통한 무료 상담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에게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사례관리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현일/기자

마포구,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 완료 사회적 고립위기 267가구 발굴

마포구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중·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동 복지플래너, 복지상담전문관 등 복지담당인력이 투입돼 지역 내 만 40세부터 64세까지 1인 가구 2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간 진행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화 및 우편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우선 실시한 후, 상황에 따라 방문상담 또는 내방상담도 병행했다.

올해 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자 조사 대상자 선별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해당 시스템으로 단전·단수되었거나 전기료·임차료·건보료 등이 체납된 가구 또는 전·월세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 등을 추출해 이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또한, 복지관, 복지통장 등 지역의 복지공동체가 발굴한 고립 위기 가구도 대상으로 삼았다.

가구별 생활실태, 주거실태, 경제상황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다세대·다가구 거주율이 78.3%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월세 거주자가 63.2%를 차지해 주거안정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응답자의 63.7%가 학제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복지욕구로는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조사를 통해 구는 복지욕구가 있는 가구에는 상담을 거쳐 공적 급여 71건, 공공·민간서비스 60건을 연계했고, 사회적 고립 위기에 처한 위기관리대상 267가구도 발굴했다.

구는 위험군으로 분류된 267가구에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마포 안부콜!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로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한편 복지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웃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등 인적안정망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전수 모니터링으로 위기상황 해소 여부를 꾸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실태조사로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데다 거주지 월세, 가게 월세, 건강보험료가 연체되는 등 여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곤란에 처한 50대 1인가구 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며 "이 분을 동 사례관리서비스 연계대상으로 선정하고 주거급여, 특별생계비 등 다양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부평구, 하나금융그룹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 MOU 체결



부평구는 19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하나금융그룹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하나금융그룹은 보육인프라 확충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지방정부와 함께 보육 취약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평구는 하나금융그룹에서 1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22억 원(국·시비 8억5천만 원 포함)으로 산곡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기부채납부지에 연면적 680㎡, 지상 4층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 오는 2023년 상반기에 개원할 예정이다.

부평구와 하나금융그룹 간 협약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구는 지난 2018년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지

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3월 부개2동 하나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차준택 구정장은 "양질의 보육환경을 갖춘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등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차준택 구정장과 전우홍 하나은행 서남영업본부 지역대표 등이 참석했다.

부평구는 올해 상반기에 국공립어린이집 4곳을 개원했으며, 오는 10월 부개역 코오롱하늘채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해 지역 내 총 27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순희/기자

동대문구, 재생자전거 기증자에 감사패 전달

동대문구는 18일 오후 3시 재생자전거 기증자인 사단법인 사랑의자전거 정호성 상임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실현에 이바지한 기증자에게 동대문구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전달하게 됐다.

(사)사랑의자전거는 2015년 동대문구와 '방치자전거 수거 및 재생자전거 기증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매년 방치로 인해 수거된 자전거를 정성껏 수리하여 취약계층을 위해 기증해왔다. (사)사랑의자전거가 올해까지 기증한 자전거는 총 268대에 달한다.

이와 함께 (사)사랑의자전거는 폐지수거 어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해 폐자전거를 활용하여 사랑의 손수레를 총 49대 제작하여 기증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감사패는 (사)사랑의 자전거의 그간 노고에 대해 구민을 대표해 드리는 작은 성의라고 생각한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행복이 될 수 있는 재생자전거 기증사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옹진군 군민상 수상자 선정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2021년 제48회 옹진군민의 날을 맞아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군민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문화체육부서 영흥면 김현기, 관광진흥부서 연평면 이명재, 사회봉사부서 덕적면 박혜숙, 효행부서 대정면

문방면, 지역개발부서 북도면 김정렬, 농수산진흥부서 백령면 윤석용, 특별부서 해군 제2함대 원사 송인태, 자월면 동촌감리교회 목사 김효은, 영흥수협 전무 박경배 등 총9인의 수상자를 확정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군민의 일상생활 제약과 지역경제 침체 등 힘든 상황속에서도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회와 행복이 가득한 옹진군을 위해 변함없이 전진하자는 취지에서 군민상을 수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진천군 송기읍 군수, 가을장마 대비 재해위험 지역 점검 실시

송기읍 진천군수가 오는 토요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을장마에 대비해 관내 재해위험 지역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점검은 지난해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던 진천읍 연곡리 일원과 농어촌도로 104호선, 급경사지, 소하천 등에서 이뤄졌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지역을 점검하기 위해 군 안전총괄과와 해당 읍면 산업개발팀의 합동점검반을 구성, 지역 곳곳을 살피도록 지시했다.

지난 2020년 여름, 진천군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며 12가구 2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건물 52동, 농경지 141.9ha가 물에 잠기는 등 52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 진천읍, 백곡면 등 2곳이 특별재난지역으



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군은 11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피해 복구를 추진해 왔으며 142개 중 141개 현장의 복구 작업을 완료한 상황이다.

송 군수는 피해 복구지에서 재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 작업 결과를 꼼꼼히 체크했으며 소하천의 지장물, 통수 위험요인, 낙석·붕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 등을 살폈다.

송 군수는 “지난해 호우 피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을 보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군수로서 많은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꼈다”며 “공직자들과 장마 대비에 철저를 기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대구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양돈농가 방역점검 및 모돈사 방역관리 강화



대구시는 지난 8일 강원 고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한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해 관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발생농장은 방역에 취약한 어미돼지(양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최근 어린 멧돼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봄철에 태어난 멧돼지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어린 감염개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여름철에 멧돼지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육돼지에서 추가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관내 농가에 어미돼지 축사(모돈사) 등 취약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로 농장 방역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오염원의 농장유입 차단을

위해 차량진입 통제 시설 설치 및 8대 방역시설을 구축해 농가에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독려한다.

정기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최근 강원·경기지역에서 어린 멧돼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증가하고, 멧돼지의 이동으로 휴전선 인근지역에서 평창·홍천·가평 등 남쪽으로 발생지역이 확산됨에 따라 백두대간을 통해 충북·경북 북부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양돈농가 등 관계자들은 의심축 발견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고 축사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년 9월 첫 발생 이래 현재까지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국 7개 시·군 18건, 야생멧돼지에서는 전국 15개 시·군 1,538건이 발생했다.

남경영/기자

유천호 강화군수, ‘해안순환도로 4-1공구’ 건설현장 점검

계획공정을 대비 120% 초과 달성, “조기개통 및 안전관리 당부”



유천호 군수는 19일 오후 23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해안순환도로 4-1공구’ 도로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해안순환도로 4-1공구’는 사업비 159억 원을 투입해 하절면 창후리부터 양사면 인화리에 이르는 도로 2km를 새롭게 개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연약지반처리 및 구조물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며 계획 공정을 대비 120% 초과 달성하고 있다.

유 군수는 현장을 꼼꼼하게 둘러 보고 공사 진행상황과 안전 관리대책 전반을 점검했다. 이어진 관계자와 간담회에서 “교통이 불편한 창후

와 협의해 직접 시행했다.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군사심의, 경관심의, 소규모 환경·재해영향평가 및 도로구역결정 고시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지난해 7월 공사에 착공했다.

유천호 군수는 “해안도로 노선이 완공되면 교통대교 개통 전 선착장으로 상업이 번성한 창후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기대된다”며 “해안도로 4공구 나머지 구간도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 군수는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사업이 가능한 ‘해안순환도로 4-1공구’에 대해 실시설계용역과 관련 인·허가 및 본공사 등을 인천시

김중남/기자

부안군, 꽃게 금어기 불법 해루질 근절 지도단속 실시

부안군은 비어업인 꽃게 금어기(6월 21일~8월 20일) 동안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부안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꽃게 금어기를 위반한 비어업인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은 꽃게 금어기 동안 불법 해루질 피해가 심한 해안가와 여촌계양식장, 해수욕장 등을 중심으로 방송차량을 이용해 금어기 준수 홍보방송을 전개했다.

또 어업인 단체에서도 꽃게 금어기 불법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을 제작해 부착하고 자발적으로 순번을 정해 야간 감시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한수 부안군의회원은 수산자원 보호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직접 트럭에 방송장치를 설치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홍보활동을 실시했으며 SBS 모닝와이드에서도 불법 해루질 단속과정을 촬영해 방송하기도 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어업



인이 금지기간 및 금지제장을 위반해 어업을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비어업인이 정해진 어구 또는 방법을 위반해 단속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금어기·금지제장 등을 위반해 수산식품을 포획·채취하게 되면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호성 해양수산과장은 “꽃게 금

어기가 8월 20일로 종료되나 금지제장 6.4cm 이하의 어린 꽃게와 복부 외포란 암컷 꽃게를 포획하는 행위 및 낚시에 게그물을 메달아 꽃게를 포획하는 행위 등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및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어린 꽃게 및 복부 외포란 암컷 꽃게를 보호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태/기자

성북구, 성매매집결지 특별방역 합동점검 실시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민·관 특별방역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13일 하월곡동 88번지 일대에서 진행된 합동점검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도 합법적인 유흥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지침에 따른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은 성북구청 여성가족과와 도시안전과(신속대응반), 중앙경찰서(생활안전과)가 협력하여 진행했다. 성매매집결지 주변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계도와 행정지도 등을 펼치는 한편, 성매매 고객행위 및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함께 진행했다.

하월곡동 88번지 일대는 현재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빈 집 및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어 관할인 길음2동 주민센터에서도 주민자치회와 주 2회 정기적인 골목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북구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방역활동과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구민의 안전을 위해 특별 방역점검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민·관의 정기 합동점검으로 방역과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강성원/기자

의성군, 휴가철 청소년유해환경 대응 다중이용시설 점검

의성군은 지난 12일 코로나19 대응 점검 및 청소년유해업소 점검을 통해 ‘안전한 여름방학 나기’를 홍보하고자 보건소,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실시하였다.

군과 유관기관은 안계면을 중심으로 관내 업소 및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에게 술·담배·환각물질 등 유해약물 판매여부, 청소년 불법 고용 및 출입제한 준수여부, 유희시설 미부착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청소년 보호 안내문도 배포했다.

또한, 광복절 연휴기간 동안 이동량을 최소화하고 사적 만남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으며, 마스크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



켜줄 것도 함께 홍보하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는만큼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김해시, 대중교통 방역점검·잠깐멈춤 캠페인 실시

여객터미널·경전철역사서 시민 동참 호소



김해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7일 대중교통시설에서 방역점검과 대시민 잠깐 멈춤 캠페인을 동시에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김해여객터미널과 경전철역사를 대상으로 승객 접점부위 방역소독, 손세정제 관리실태 등 방역현황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방역점검반이 경전철에 탑승해 마스크 착용을 점검하고 잠깐 멈춤 캠페인을 실시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번 점검과 캠페인은 오는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사적모임과 외출 자제 등 잠깐 멈춤 캠페인 동참을 촉구하고 대

중교통, 다중이용시설(터미널, 경전철역사 등)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시내버스 정류소 등의 방역점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감염 노출에 취약한 대중교통 운수업체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지원했으며 터미널 내 QR코드·안심콜 도입, 해외입국자 수송차량 지원 등 코로나19 선제적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대중교통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남경영/기자



성주군,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성주군은 8월 17일 성주읍 BOOK-문화놀이터 조성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1·2단계) 현장에서 이병환 군수와 시공사 등 관계자와 함께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로 인한 작업근로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관리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군

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방침을 한 번 더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병환 군수는 “성주읍 BOOK-문화놀이터 및 도시재생뉴딜사업(1·2단계)현장은 역점사업인 대형건설사업장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만큼,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철저한 안전관리 지침 준수를 거듭 강조하였다.”

한반식/기자

안산시,보육가정건강과일지원접수 다음달30일까지



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신청하세요

신선한 제철과일 섭취로 어린이 건강도 키우고, 과일 소비 확대로 과수농가 판로도 마련하는

지원대상 해당 시·군에 주소와 두고, 신청일 기준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보육 어린이
 * 신청일 현재(8~9월)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정에서 양육하는(유치원·어린이집 등 기관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어린이

지원금액 양육수당 어린이 1명당 45,800원

지원항목 지역화폐 건강과일 지원금 또는 과일꾸러미 중 택1 (신청 시 선택)

신청기간 신청기간: '21. 8. 17(목) ~ 9. 30(목) / 대상자 지역요건 검증: '21. 10. 1(금) ~ 10. 22(금) / 대상자 확인 통보: '21. 10. 25(월) ~ 10. 29(금) / 지급(배송) 기간: '21. 11. 1(월) ~ 12. 31(금)

신청방법 * 경기도 홈페이지 '건강과일 신청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gg.go.kr/fruit>)
 * 온라인 신청 어려운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양육수당 담당부서에 신청

지급(배송) 기간 2021. 11. 1(월) ~ 12. 31(금)
 ① 지역화폐 선택 시, 11.1(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며 12.31(금)까지 사용 가능
 ② 과일꾸러미 선택 시, 11월 ~ 12월 중 순차적으로 가정에 배송

안산시는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경기도산(産) 과일'을 제공하는 건강과일 지원 사업 접수를 다음달 30일까지 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기존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지원해 왔던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을 작년보다 확대, 가정보육 어린이에게도 과일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면서 신청일 현재(8~9월) 양육수당을 받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다음달 3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 방식은 어린이 건강과일을 과일꾸러미로 배송 받는 방식 혹은 과일을 직접 구입하도록 안산화폐 다운로드 지원금을 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과일꾸러미 방식을 선택하면 경

기도산 사과, 배 등을 포함한 국내산 제철과일이 신청한 주소로 배송되며, 지원금 지급 방식은 아동 1인당 4만5천800원의 건강과일 지원금을 다운로드 받아 올 연말까지 지정된 지역 내 농산물 판매점에서 구입하면 된다.

시는 10월25~29일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12월 양육가정에서 선택한 방식에 따라 과일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사업을 통해 가정에서 보육 중인 아동 7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육시설에만 지원하던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이 가정보육 어린이까지 확대돼 모든 어린이가 질 좋은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됐다"며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파주시의회, 예방접종센터 및 선별진료소 격려 방문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에 깊은 감사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을 비롯한 조인연 부의장, 목진희 의회운영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은 지난 17일 예방접종센터 2개소(시민회관, 운정행복센터) 및 선별진료소 4개소(보건소, 운정, 문산, 광탄)를 방문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예방접종센터와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및 현장을 살피고, 무더위와 싸우며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파주시의원들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폭염까지 계속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위해 힘써주시는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

분께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백신 접종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양수 파주시의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시는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강도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 4차 대유행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의료진의 건강 또한 매우 염려된다"며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속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어 소중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파주시는 코로나19 백신의 효율적인 접종을 위해 지난 4월 시민회관 예방접종센터 설치에 이어 지난 7월 14일부터 운정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영기기자

남양주시, 퇴계원읍 사회단체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을 꽃밭으로 바꾸다!

파리 NO! 나비가 춤추는 꽃밭 가꾸기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8일 주변 환경을 개선하며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로 불편을 겪어 온 지역 주민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목받고 있는 퇴계원읍 퇴계원6리의 한 다세대주택을 방문했다.

이번에 방문한 다세대 주택은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가 발생하던 지역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퇴계원읍 사회단체는 지난 5월 지장물 철거 등을 시작으로 지역 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퇴계원읍 사회단체는 해당 구역을 깨끗하게 청소한 것에 이어 6월에는 땅을 펴평하게 다지고 그 자리에 꽃과 채소를 심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해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쓰레기로

가득했던 곳이 이제는 사람과 나비들이 찾아오는 꽃밭으로 바뀌었다.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ESG 행정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동안 지역 사회를 위해 발 벗고 나서 주신 퇴계원읍 사회단체 회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조 시장은 남양주시 환경혁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 '삼색존'을 개선한 퇴계원읍 '삼색존 2.0' 설치 현장도 함께 둘러봤다.

퇴계원읍은 보다 많은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삼색존'을 한층 발전시켰으며, 기존 '삼색존'과는 달리 고무 매트를 활용한 '삼색존 2.0'으로 설치 예산을 절감하고 이동성을 높였다.

퇴계원읍 새마을부녀회 이순동 회장은 "오랜 시간 쓰레기 무단 투



기 문제로 고통받아 온 지역의 한 주민으로서 환경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시정을 펼치시는 시장님께 주민을 대표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꽃밭에서 직접 키워 수확한 파, 깻잎, 가지 등으로 만든 '채소 꽃다발'을 조 시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퇴계원읍은 쓰레기 무단 투

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무단 투기 지역에 '삼색존 2.0'을 설치할 계획이며, 오는 9월 퇴계원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에코피아 라온지'를 개관해 환경 의식 개선을 위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경을 테마로 하는 영화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정하영 김포시장 운양동 조류생태공원 '국내 최장 쿨링미스트(Cooling-mist) 시스템 터널' 시운전 현장행정



정하영 김포시장은 8월 17일 경기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한 '쿨링미스트 시스템 조성사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시운전상황을 점검했다.

조류생태공원의 '쿨링미스트 시스템'은 봄철 김

포한강신도시로 유입되는 황사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여름 폭염시 제방 하부 조성된 숲 길의 청량감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미세한 안개를 분출하는 시스템이다.

김포시는 코로나19바이러스 및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 재난에 대응하고자 시정혁신과제의 일환으로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도비를 배분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한강변 선형으로 조성된 생태공원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숲길과 함께 병행된 400m구간에 와이어형, 레일형, 풀형 등 다양한 종류의 7개소 미스트 시설을 도입하였다. 국내에서는 가장 긴 명물 특화시설이다.

특히 여름밤 야간에도 시민이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관조명

을 설치하여 특색있는 공간을 연출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날 현장행정에서 "타워형 시설물은 아이들도 아주 좋아할 것 같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특화시설로 마무리 공사에 심혈을 기울여달라"며 "막바지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신도시 등 공원의 식생과 시설물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클린도시사업소 두철원소장은 "대외적으로는 수도권 조류생태공원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는 공원 이용에 대한 만족감과 건강·휴양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겠다"고 대답했다.

정동희기자

의원연구단체 'Sports-City 용인IV', 화성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City 용인IV(대표 남홍숙)는 18일 오후 2시 체육 관광활성화를 위한 연구방안을 모색하고자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의원연구단체 회원들과 용인시 체육진흥과장, 용인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용인시체육회 사무국장, 용인시장예인체육회 운영과장 등 14명은 화성종합경기타운을 방문해 2017 화성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 사례를 공유하고 시설물을 둘러봤다.

또한, 화성시 우수 사례를 분석하며 2022 용인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홍숙 대표는 "2022 용인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화성시의 사례를 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시와 소통하며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용인시 체육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의원연구단체 회원들과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한편, 'Sports - City 용인IV'는 남홍숙, 이창식, 윤원균, 박만섭, 윤환의원(5명)으로 구성됐으며, 체육과 관광활동에 대해 연구하여 용인시 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최정부기자



구리시, SNS 콘텐츠 시민기획단 '모DOIT다:모두있다' 모집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기획과 운영 활동 펼칠 예정

구리시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기획과 운영을 함께해 나갈 SNS 콘텐츠 시민기획단 '모DOIT다:모두있다' 1기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8일부터 22일까지로, 문화예술과 콘텐츠 기획에 관심 있는 구리시민이나 구리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은 신청 가능하다. 서류 심사를 통해 총선발된 12명의 기획단원은 총 4개월간 문화예술현황 등 지역조사를 포함한 월별 SNS 콘텐츠 업로드, 정기 기획 회의, 관련 교육 참여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안승남 시장은 "시민기획단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과 차별성을 더하여 구리형 문화예술교육을 선도할 수 있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모집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홈페이지, 혹은 구리시 문화예술과로 하면 된다.

한편, '모DOIT다:모두있다'는 민선 7기 공약사항인 '구리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일환으로



SNS 콘텐츠 시민기획단 '모DOIT다:모두있다' 1기 모집

모집인원 12명

지원자격 구리시 소재 주민으로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SNS 콘텐츠 기획과 운영에 관심이 있는 구리시민이나 구리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거나 활동하는 사람

모집기간 2021. 8. 18 ~ 8. 22 (5일간)

신청방법 구리시 홈페이지 문화예술과로 신청

문의처 구리시 문화예술과 (031-350-2465)

운영되는 시민 사업 중 하나로, 지역 내 문화예술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시민 의견 수렴, 시민 참여 도모 등을 통해 현재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운영 중인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최만식기자

용인시, 어르신~! 실버카로 편하게 산책하세요!

용인시치인노인복지관, 어르신 이동 편의를 위한 실버카 공모 선정

용인시치인노인복지관(관장 김기태)에서는 '2021 노인 이동 편의를 위한 실버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8일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 4명에게 보행보조기인 실버카를 전달했다.

실버카 지원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지원하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받은 보행보조기 실버카는 복지관 소속 생활지원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전달했다.

아울러, 생활지원사들은 어르신에게 실버카를 이용할 시에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



기 위해 실버카 사용방법안내와 안전 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실버카를 지원받으신 한 어르신은 "지팡이는 팔, 허리, 다리 모두 힘이 들

어가서 외부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보행보조기가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 줘 편안하게 외출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기태 관장은 "보행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이번 실버카를 통해 외부활동 시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복지관에서는 관내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실현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실버카 지원 사업 외에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정부기자

성남시, '미디어종독 대처방안' 4차례 특강 열어

새롭게 오문행 평생학습센터 디지털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2021년 여름학기 성남인문학당 수강생 모집안내

비대면 환경이 일상인 시대에는 오히려 비대면 환경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미디어종독 대처방안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년 여름학기 성남인문학당을 통해 다시 한번 미디어종독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의명	강사명	강의시간	강의대상
1강	8.23(화) 19:00-21:00	8.23(화) 19:00-21:00	미디어종독 대처방안
2강	8.25(목) 19:00-21:00	8.25(목) 19:00-21:00	미디어종독 대처방안
3강	8.30(화) 19:00-21:00	8.30(화) 19:00-21:00	미디어종독 대처방안
4강	9.02(목) 19:00-21:00	9.02(목) 19:00-21:00	미디어종독 대처방안

신청처: 성남시 평생학습센터 (문의) 031-729-4600 (팩스) 031-729-2808

성남시는 오는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월·목요일 오후 7시 '미디어종독 대처방안'에 관한 4차례의 온라인 특강을 연다.

시 공식 유튜브 채널 '성남TV'를 통해 생중계하는 이번 특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늘어난 스마트폰 등의 의존도와 폐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여름학기 성남인문학당 프로그램이다.

조현섭 총신대 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일일강의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 내용은 ▲1강(8.23)=스마트폰, 게임, 인터넷 등의 미디어 과의존에 대한 이해 ▲2강(8.26)=미디어 과의존의 폐해와 부작용 ▲3강(8.30)=미디어 과의존 대처방안 ▲4강(9.2)=과의존 대처방안 심화 등이다.

이들 강의는 최근 분당구 야탑동 평생학습관에 새로 문을 연 디지털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모두 200명의 시민이 무료 수강할 수 있다.

이성용기자

화성ICT생활문화센터,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아티스트에게 공간 지원

고양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선정작 '부전자전 모차르트' 선보여

19일부터 31일까지 모집... 오는 9월 선별 예정

화성 ICT생활문화센터 (ACT GROUND)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아티스트를 위한 '공간임주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기업별 공간 구분 없이 오픈형 1인 1좌석으로 총 8좌석을 모집하며, 지원 대상은 첨단기술 및 제조, 디자인, 콘텐츠 융·복합 분야 스타트업 기업과 아티스트이다.

임주기간은 오는 9월 2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이며 임대료는 무료이다.

1개 기업 당 최대 4석까지 신청 가능하며, 현재 기업에 소속된 인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임주자는 화성ICT생활문화센터가 보유한 미디어장비와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등 팸장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지원된다.

특히 센터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각종 체험과 메이킹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설하고 운영도 할 수 있어 기업을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입주 신청은 19일부터 31일 17

화성 ICT 생활문화센터 (ACT GROUND)

공간임주 기업모집

2021. 8. 19. ~ 8. 31. (토) 17:00 까지

신청처: 화성 ICT 생활문화센터 (ACT GROUND) 031-729-4600

고양문화재단은 2021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우수프로그램 선정작으로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부전자전 모차르트 - SUMMER CLASSIC'을 8월 20일 오후 7시30분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선보인다.

전 시대를 통틀어 최고의 고전음악 작곡가로 칭송받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생애는 영국의 극작가 피터 셰퍼의 희곡으로도, 밀로스 포먼 감독의 영화 '아마데우스'로도 잘 알려져 있다. 대중에게 소개된 이야기의 대부분은 천재음악가와 그의 천재성을 시기하는 2인자 살리에리를 다룬 것으로, 그의 천재성이 심화되고 발휘되는데 기여한 뛰어난 작곡가이자 음악교육자이기도 한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와의 에피소드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번 '부전자전 모차르트'에서는 레오폴트 모차르트(Leopold Mozart)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부자(父子)가 작곡한 대표곡들을 들어보고, 모차르트의 생애 그리고 아버지와 그의 에피소드를 살펴봄으로써 모차르트 집안의 음악 DNA를 집중 탐구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최근 부천필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2021년 8월 20일 (금) 오후 7시 30분

부전자전 모차르트

2021 문화의연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주최: 고양문화재단

공연장: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장윤성의 지휘로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며, 피아니스트 송영민, 소프라노 서선영, 바리톤 박정민, 트럼펫터 전석호가 협연할 예정이다. 모차르트 부자(父子)의 교향곡, 피아노 협주곡, 트럼펫 협주곡, 오페라 아리아 등 다양한 형식의 대표곡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풍성한 무대로 준비하고 있다.

한영기기자

시흥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진짜 나를 찾아가는 길-컬러펜' 참가자 모집

시흥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의 창의·융합 미래 역량을 강화하고, 폭넓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흥시 청소년(11~13세)을 대상으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길-컬러펜' 참가자를 모집한다.

'진짜 나를 찾아가는 길-컬러펜' 프로그램은 컬러테라피 전문가와 함께 컬러가 지닌 다양한 성향과 직업군을 알아보고, 자신의 컬러를 찾아보며 자화상 팝아트를 완성하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운영된다.

참가 접수는 오는 8월 27일까지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신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은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진짜 나를 찾아가는 길-컬러펜' 프로그램에 시흥시 청소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진짜 나를 찾아가는 길 - 비대면활동

진짜 나를 찾아가는 길-컬러펜

나의 컬러는 무엇일까? 자화상팝아트그리기

신청기간: 2021.8.17(화)~27(금) / 신청은 마감

신청대상: 시흥시 거주 11세~13세 청소년 10명

활동내용:

일정	내용
8.28(토)	최종 참가자 안내(가별로)
9.7(월)~10(금)	활동 키트 배송(자료, 참여카드, 색지 등)
9.11(월)	'컬러테라피 전문가'와 함께 컬러를 찾아보기! - 자신의 컬러 찾아보기! - 컬러 성향에 따른 직업 알아보기! - 컬러를 활용하여 자화상 완성하기! - 컬러를 활용하여 자화상 완성하기! - 컬러를 활용하여 자화상 완성하기!

신청처: 네이버폼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http://naver.me/5Cg54Q>

문의처: 031-404-7141 (시흥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동탄 호수공원 리슈빌

부산시 박형준시장,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조성에 앞장”

부산시, '부산형 통합돌봄 추진 기본계획(2021~2024)' 수립



부산시가 “A.I.P(Aging In Place, 사는 곳에서 나이들기)”를 위한 돌봄체계 구축에 나섰다.

부산시는 보편적인 시민의 삶을 지원하고, 초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변화와 뉴노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개년(2021~2024년) '부산형 통합돌봄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부산진구, 북구에서 시행 중인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그 외 14개 구·군에서

시행 중인 자체 시범사업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연구 및 조사, 노인·장애인 등 통합돌봄 주요 정책 대상 사업부서와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시는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가족 돌봄자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산형 통합돌봄체계 고도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전략과 22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사는 곳 가까이에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15분 통합돌봄장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탈시설(병원)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등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 시민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통합돌봄 조성사업 추진 ▲통합돌봄 제공 인프라 구축 ▲지역거점기관 설치 및 재가서비스패키지 지원 ▲탈시설·탈병원 자립생활 지원 ▲거버넌스 구축

의 5대 주요 전략별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시는 '부산형 통합돌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된 부산진구와 북구를 지원하고 ▲정부 선도사업과 연계한 자체 부산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통합돌봄 제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사는 곳 가까이 돌봄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오는 2022년까지 205개 읍면동에 '15분 원스톱 통합돌봄장구'를 확대 설치하고 ▲오는 2024년까지 권역별로 단기보호시설 5곳을 확충해 가족 돌봄자의 돌봄부담을 완화한다. ▲응급상황 돌봄공백 예방을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도사업 지역 우수사례인 '식사·영양관리사업'도 권역별로 조성하며 ▲지역주민 커뮤니티공간 '어울림센터' 설치도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 돌봄을 위한 'AI스마트홈 서비스'의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돌봄서비스 패키지(식사지원, 이동지원 등 7개 서비스)도 지원한다. ▲돌봄육구 파악을 위한 '돌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추치의 방문진료 사업'을 확대해 거동 불편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선도사업 지역 우수 모델인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돌봄활동가 양성사업'을 확대하고 ▲돌봄 소진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족돌봄 제공자의 돌봄부담을 완화한다.

탈시설과 탈병원을 통해 장기 입퇴원자와 시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도 지원한다. 시는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융합한 '케어안심주택'을 80호에서 130호로 확충하고 ▲퇴원자 '재가료급여' 시범사업 참여를 확대한다. ▲요양병원 환자지원

팀과 연계한 '퇴원지원사업' 확대하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체계(2024년까지 300명)'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역 단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돌봄 추진단'을 활성화하고 ▲사업지역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위한 '통합돌봄 관리사업'을 실시한다. ▲통합돌봄 브랜드 개발(BI) 및 홍보 ▲자치구·군 민관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부산형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거버넌스를 통해 돌봄 대상자 보호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 9월이면, 우리시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돌봄 수요 급증과 사회적 비용 증가는 곧 노인 건강 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탈시설과 커뮤니티케어 등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위한 보호 체계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에 따른 돌봄체계 변화 등을 고려한 틈새 없는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 돌봄 제공자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을 통해 돌봄 피로도를 완화하고 일과 돌봄, 일상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자치구·군에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제정과 통합돌봄 매뉴얼 개발을 추진하는 등 기본계획 수립 후속 조치에 나서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건보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BMC) 등과 함께 업무협약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주거·건강·의료 등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남영명기자

경남도, 외국인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다국어 안전정보 제공

각종 사고·재난 대처 요령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수록한 안전생활 길잡이 제작

경상남도는 매년 증가하는 도내 외국인 주민에게 안전생활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어 안전생활 길잡이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책자는 안전사고 예방법과 각종 사고와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는 요령을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적 재난상황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개인 방역수칙과 검사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들은 안전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각종 사고와 재난 발생 시 피해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커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비상대비 ▲재난대비 ▲코로나19 예방 등 6개 분야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수록한 책자가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 및 대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표·삽화 등 시각적 효과로 이해도를 높였고, 베트남어·중국어·태국어·러시아어 및 영어 5개 언어로 구성되어 유학생, 다문화가족 등 더 많은 독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책자는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배포하고 안전교육 과정로도 활용할 뿐만 아니라 경남도 누리집을 비롯하여 다양한 외국인 공동체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하종덕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책자를 적극 활용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외국인 주민들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울산시·낙동강유역환경청 공동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점검 실시

수질기준 준수 및 미신고 설치 여부 등

울산시는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 및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공동으로 '여름철 물놀이 수경시설 관리실태'를 8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순환해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으로 조성한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 시설을 말한다.

점검대상은 총 37곳(공공 29곳, 민간 8곳)이다.

점검내용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 운영 신고 ▲수질기준 준수(운영기간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



질검사 실시 등) ▲관리기준 준수(수심 30cm이하 유지, 저류조 주 1회 청소 등) 등이다.

또한 수질관리 점검도 병행한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수질기준 미달 시설은 즉시 시설 운영을 중지한 후 개선조치하고, 수질 검사 미이행 시설은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김기현/기자

창원시, 사파·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인구확충·경제V-턴 견인 기대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인구확충과 경제V-턴을 견인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여좌동 옛 육대부지에 진해연구자유지역 조성용지와 시민 여가·편의시설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구)육군대학부지에 사업비 56,780백만원을 들여 327,291.5㎡의 부지와 교량, 터널 등 진입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중으로 올해 12월, 모든 행정적 절차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파지구 개발사업은 성산구 토월·사파정·남산·대방동 일원에 3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으로 사업비 2,710억원으로 규모 914,690㎡에 공원 등 기반시설 87%, 주택용지

8.8%, 기타 4.2%를 조성하는 친환경 도시개발사업이다. 2019년 12월 1단계 부지조성공사(공동주택 62,343㎡)를 준공하였고, 2020년 12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승인 이후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 설계 경제성(VE) 검토, 계약심의회,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조달청 공사원가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0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여좌지구는 올해 9월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12월 사업완료 예정이다. 향후, 여좌지구의 진해연구자유지역 조성으로 제2차료연구원을 비롯한 유치기관 입주, 상권인구 754명, 이용인구 4,095명 유입이 예상되며, 생산 유발액 1조 6,149억원, 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어 진해구 서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1년 10월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창원가정법원 입주와 더불어 교육연구, 주거, 녹지공간이 어우러진 특성화된 지역으로 발전해 지역 내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이종근 도시개발사업소장은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하여 향후 경남 최대의 법조타운 조성과 인구유입 도모 및 시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집중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영명/기자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전몰군경미망인 위로방문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8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전몰군경미망인 가정을 위로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던 위로행사 대신 격려품을 준비하여 전몰군경미망인 어르신 80여 명에게 전달했다.

조영인 회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긍지를 잃지 않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온 전몰군경미망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올해는 코로나로 한자리에 만나지 못해 아쉽지만 내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명례 전몰군경미망인 통영지회장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매년 잊지 않고 미망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우리 전몰군경 미망인들은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후손들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호국보훈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전몰군경과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매년 위로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경남도, 야간·휴일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확대

창원시 양덕서울아동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추가 지정

경상남도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양덕서울아동병원을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인근 온누리건강한약국을 참여약국으로 지정하여 9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양덕서울아동병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2년간 평일(월, 수, 금) 밤 11시, 토·일·공휴일 오후 6시까지 만 18세 이하 소아환자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늦은 시간 소아환자 불편 해소 및 비용부담 경감, 맞벌이 부부의 편의 제공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휴일에 소아경증환자가 문을 연 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거나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진료비 부담 등을 줄여주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현재 전국 병·의원 23곳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도내에는 통영시 SCH서울아동병원과 창원시 CNA서울아동병원이 지정되어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강지숙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앞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수시신청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이어 “달빛 어린이병원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많은 관심을 독려했다.

최광용/기자

칠곡군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전국대학생서포터즈모집



새로운 공간 세상에 없던 축제의 시작

제8회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대축전 **METaverse 서포터즈**
전국 최초 메타버스 축전을 함께 만들어갈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는 분 - 축제 홍보와 콘텐츠 기획에 관심있는 분

모집인원
50명 (사위칭(사.후.8월.24일(수) 18:00~11월.17일(수) 18:00)까지)

모집기간
2021년 8월 9일(월) ~ 8월 23일(월) 24:00까지

활동기간
9월 1일(수) ~ 10월 17일(일)
*메타버스 빌대믹 2021년 8월 26일(목) 18:00 예정

활동내용

- 개요 메타버스 축전장 공간 크리에이팅 및 관리
- 운영 메타버스 참가 관람객 안내 및 소통
- 홍보 메타버스 행사장 홍보 콘텐츠 제작

활동혜택

- 소정의 활동비 지급
- 메타버스 관련 교육 진행
- 활동 증명서 지급

지원방법
제8회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홈페이지 ▶ 구공공 링크를 통한 접수

문의사항 nrdar@naver.com / 서포터즈 활동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칠곡군은 오프라인은 물론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 열리는 낙동강세계평화 문화대축전을 함께 만들어 갈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서포터즈 모집기간은 8월 9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며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활동한다.

최종 선발된 50명에게는 활동비를 비롯해 메타버스 교육과 증명서가 발급된다.

‘낙동강세계평화 문화대축전’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낙동강세계평화 문화대축전 사전축제는 9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열리며 본 축전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칠곡보 생태공원일원에서 개최된다.

메타버스 축전장에 공연, 전시, 체험, 라이브커머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보다빨리! 보다많이! 기업경영'숨 토크'정책추진 2021년 추석맞이 구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용자지원 규모 350억원, 1년간 2.5% 이자지원

구미시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예년보다 접수 시기를 앞당기고 용자지원 한도도 35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지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자금 용자 시 대출 금리 일부(2.5%)를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용자업체액은 일반업체 최대 3억 원, 우대업체 최대 5억 원으로 최근 1년간 매출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뉘며 코로나 19 관련 경영안정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에 운전자금을 집중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1년도 **추석맞이 구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자지원**

접수기간: 2021. 8. 20. (수) ~ 8. 26. (목)

- 지원규모: 연 2.5% 이차지원 (1년간)
- 지원대상: 3억원 이내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지원액: 5억원 이내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접수처: 구미시경제지원포털 온라인 접수(www.gumi.go.kr/bsf)
- 문의처: 구미시청 기업지원과(054-339-9100)

한편 추석맞이 운전자금 신청은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자금소진 시 조기 마감)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로 온라인 신청(비대면)하면 된다.

영주시 생활개선영주시연합회, 농촌 일손부족 어려움 함께 나뉨



영주시 생활개선회영주시연합회(회장 정매자)가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에 동참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했다.

생활개선회영주시연합회는 19일 새벽부터 회원 20여명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생활개선회는 한창 바쁜 시기에 일손이 없어 시름에 빠졌는 고추재배

농가에 도움을 드리고자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사활동에 나섰다. 고추수확을 돕는 작은 손길이지만 농가의 수고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농촌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함께 나눴다.

정매자 생활개선영주시회장은 “바쁜 와중에도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개선영주시연합회는 봉사활동, 장학금 기탁 등 다양한 봉사활동과 함께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농업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기현기자

경북 영주서 올 첫 벼베기... '8·15 광복쌀' 수확

지난 4월 24일 모내기 후 118일째 수확... '추석밥상 선점'

경북 영주서 올 첫 벼베기 행사가 19일 오전 10시 장수면 반구리 8·15 광복쌀 재배단지(이시욱 농가)에서 열렸다.

이번에 수확한 '8·15광복쌀'은 조생종인 해당벼와 진옥벼로 지난 4월 24일 모내기를 한 후 118일 만에 첫 수확이다.

'8·15광복쌀'은 밥맛이 좋아 대도시 소비자들 사이에 추석선물로 매우 인기가 있는 쌀이다. 오는 8월 말까지 120여 톤(조곡)을 수확해 안정농협에서 일괄수매를 통해 도정 후 '8·15광복쌀'(4kg, 5kg상품)이라는 브랜드로 농협 하나마트와 대형마트를 통해 추석명절 소비자들에게 시판된다.

'8·15광복쌀'은 시가 지난 2012년부터 쌀시장 개방과 산지 쌀값 하락에 따라 다양한 판로를 개척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안정농협과 협력해 추석용 쌀로 개발한 브랜드다. 8월 15일 무렵에 수확해 광복절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세대들에게는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자 스토리텔링한 쌀



이다. 시는 지난해 광복절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2020년 8월 13일 독도를 직접 방문해 영주에서 생산한 '8·15광복쌀'을 독도경비대에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시는 안정농협(조합장 손기을)과 손을 잡고 8·15광복쌀의 대외

경쟁력 확보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계약재배 단지 20ha를 조성하고 재배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차별화된 쌀공급을 위해 품종 특성에 맞춰 각 생육단계별로 현장 지도를 강화해 부가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판로개척을 통해 8·15광복쌀을

전국적인 명품 쌀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8·15광복쌀 재배농민 이시욱씨(45세, 장수면 화기리)는 “올해는 기후 여건이 좋아 벼 이삭이 탐스럽게 여물었다”며 “첫 수확이라 기분 좋고 추석 시장에서 인기가 좋아 안정된 수익을 안겨줘 더 기분 좋다”고 말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벼베기 행사는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 가는 고품질 영주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가 됐다”며 “대한광복단 최초 결성지 영주서 생산한 8·15광복쌀이 국민들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는 역사적으로 광복절과 관련이 깊다. 일제강점기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벌인 대한광복단이 1913년 영주 풍기에서 처음 조직됐다. 대한광복단의 송고단 애국정신을 기리는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이 영주시 풍기읍 산밭리에 있다.

김기현기자

남다른 구석구석, 남구 주요 관광지 새롭게 단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코로나19로 야외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남구 관광정보 및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지 환경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도심 속 안전한 야외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남구는 앞산 해넘이전망대, 고산골 공룡공원, 앞산공원 등 남구 대표 안심 야외관광지 방문 관광객을 위한 관광지 환경정비를 추진했다.

한국관광공사 '여름 비대면 안심 관광지 25선'에도 선정된 앞산 해넘이전망대는 도심에 있어 멀리 가지 않고도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야외 관광지로, 남구는 방문 관광객 편의 증대를 위해 관광안내표지판 4개소를 추가로 설치했다.

더불어 대구도시철도공사와 협력하여 도시철도 1호선 대명역 2번 출구벽면에 앞산 해넘이전망대 가는 길 안내 및 남구 주요 관광명소 디자인을 랩핑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은 고산골 공룡공원은 지난 5월 「대구생태관광자원 체험형 포토존 제작설치 및 프로모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야외 포토존을 설치했다. 남구 심벌마크 색상인 청색, 연두색, 주황색을 활용하였으며 어린이·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친근하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설계되었다. 또 야간에는 은은하게 조명이 빛나 고산골을 찾는 야간 산행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남구는 자연 친화형 스포츠 클라이밍장, 내년 하반기 개장 목표인 3대가 함께 소통하는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앞산 하늘바다 등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생태·힐링 관광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도심 속 일상 여행지, 야외 레포츠 관광지 남구로 자리매김 할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남구 관광지 구석구석 철저한 방역관리와 관광객 방역수칙 이행 점검 등 관광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야외 관광지 편의시설, 볼거리 등을 제공하여 안전한 남구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남궁영기자

예천군농업기술센터, 제12기 귀농·귀촌과정 수료식 개최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18일 오후 4시 농업인회관에서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교육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기 귀농·귀촌 영농기초기술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에 따라 교육장 입실 전 손소독, 발열 체크, 교육 기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며 교육을 듣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수료해 의미를 더했다.

지난 3월 24일 개강을 시작으로 10회차 총 44시간을 운영하며 귀농·귀촌인에게 꼭 필요한 농업정보, 지역 주요작목 영농 기초기술, 귀농 선배농가 현장견학과 지역 문화탐방을 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김학동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귀농귀촌 교육을 무사히 수료한 교육생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드린다.”며 “이제 교육에 대한 첫발을 내디뎠으니 교육생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발전해 예천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영천시, 우리 문화유산 탐구로 9월 인문학 여행 떠난다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과 공동 추진, 오는 23일부터 35명 선착순 모집

영천시는 명품인문도시를 지향하는 영천시 대표 인문학 프로그램인 'The(더) 공감 인문학' 하반기 특강을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며 매일 주제가 있는 콘서트 형식으로 11월까지 추진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상반기 특강은 높은 참여 열기로 모집 인원을 25% 늘려 교육이 진행됐고 이런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반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매주 수요일 시민들을 찾아간다.

특히 9월 특강은 지역 문화유산 전문연구원인 경북문화재단 문화재단 연구원과 공동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역사학자들과 떠나는 우리 문화유산 탐구'라는 주제로 역사·고고학 분야 국내 우수 전문학자들(노중국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외 3인)이 찾아와 시민들과 우리 문화유산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나눌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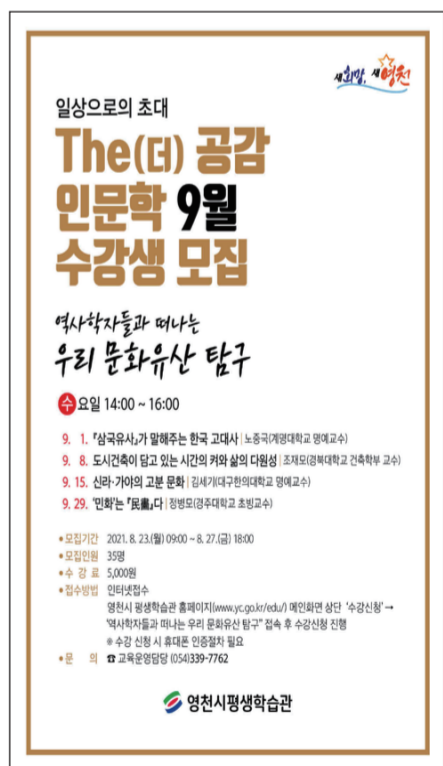
삼국유사, 도시건축, 신라·가야의

고분, 민화 등 유구한 시간 속에서도 살아남은 문화재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는 흥미와 감동뿐 아니라 현재를 다시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높다. 직접 찾아가고 만져볼 수는 없지만 그 가치의 궤적을 돌아보는 알찬 역사여행은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The(더) 공감 인문학이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그 내용이 더욱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시민들과 기쁘게 나누려고 한다”고 밝히며 “특강을 통해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가을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9월 수강신청은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로 19세 이상 영천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모집 인원은 35명으로 수강료는 5,000원이다. 인터넷 선착순 접수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평생학습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반식기자



일상으로의 초대 **The(더) 공감 인문학 9월 수강생 모집**

역사학자들과 떠나는 우리 문화유산 탐구

요일 14:00 ~ 16:00

1. '삼국유사'를 읽는 한국 고서사: 노중국(계명대학교 명예교수)
2. 도시건축이 담고 있는 시간의 거울: 김기현(영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3. 신라·가야의 고분 문화: 김기현(영남대학교 명예교수)
4. 9월 23일: '민화'와 '영동'의 고분(노중국)

모집기간: 2021. 8. 23일(화) 14:00 ~ 8. 27일(금) 18:00

모집인원: 35명

수강료: 5,000원

접수방법: 평생학습관 홈페이지(www.yc.go.kr) 개인회원 신청 '수강신청' - '역사학자들과 떠나는 우리 문화유산 탐구' 접수 후 수강신청 진행

*수강 신청 시 휴대전화번호 필수

*문의: 054-339-7762

영천시평생학습관

구미시, 8월 비대면 공직자아카데미 개최

구미시는 8월 19일 오후 7시부터 비대면 교육으로 '8월 공직자아카데미'에 행복한아이연구소 서천석 소장을 초청하여 직원 교육을 추진하였다.

이 날 교육은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진행하여, 근무시간 이후 자택 등 개별 장소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교육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였다.

서천석 소장은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라는 주제로 코로나 시대 육아 10계명, 자녀 감정 헤아리기,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노하우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었으며,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최근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통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자녀를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활기찬 일터와 우리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한 필수조건은 개개인의 회복탄력성인 가정임을 강조하고, 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어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기를 당부하였다.

남궁영기자

전남도 김영록지사,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모

18일 도청 실국장들과 함께 남악 중앙공원 동상 참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8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도청 실국장들과 함께 남악 중앙공원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동상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참배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도민이 참여하는 추모행사를 개최할 수 없어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간부들만 참석해 단촐하게 이뤄졌다.

김영록 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을 던지고, 동서 화합에 앞장섰으며,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한 것은 물론 한반도 냉전구조를 깨뜨려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며 “이같은 삶과 정신은 우리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힘든

요즘 위기를 기회로 만든 김대중 대통령의 통찰과 혜안이 더욱스럽다”며 “그 숭고한 정신을 받아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와 이를 연계한 전남형 뉴딜로 대한민국의 새 변화를 이끌고, 초광역 남북협력사업을 선도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다짐했다.

전남도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대통령의 숭고한 발자취를 기리기 위해 20일까지 도청 1층 운선도 홀에서 추모 사진전을 개최한다.

또한 일반 도민이 함께 추모할 수 있도록 20일까지 목포 삼학도에 있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2층 전시실에 추모 문화 공간을 운영한다.

김영민기자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 장애인정책 현장 방문

광주시, 17~20일 코로나19 극복 장애인 특별주간 지정·운영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7일 서구 장애인복지관을 찾아 20여 개의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생토크’를 열고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생토크는 17일부터 20일까지 운영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장애인 특별주간’의 첫 번째 행사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 장애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맞춤형 신규정책 발굴,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크에서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시설들은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편의증진기술센터 자치구 확대 운영 ▲농아인쉼터의 주간보호 시설 전환 ▲수어교육원 설치 등 장애인 유형별로 현장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용섭 시장은 “비장애인이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을 장애인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전국 최초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와 아이스팩 재활용 장애인일자리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맞춤형 돌봄을 실시하고 있는 방림동 지원주택(level3)을 방문해 종사자를 격려하고, 방역수칙 자율이행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에 각별히 힘



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발달장애인의 부모는 “아이가 커갈수록 일상에 제약이 많아 편한 날이 없었는데 ‘융합돌봄’ 덕분에 평범한 일상을 찾았다”며 “많은 발달장애인이 가정이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시장은 “융합돌봄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헌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장애인을 극진히 보살피고 현장운영을 해줘 감사드린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돌봄 체계’가 발달장애인 돌봄의 선도모델로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19일에는 농아인 쉼터를 방문해 장애인 관련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시설 보호가 어려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24시간 돌보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를 개소했으며, 현재 시립장애인복지관과 서구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환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덕윤기자

순창군, 2021년 제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오는 8월 27일까지 40명 모집, 백신접종 지원 및 생활방역 분야

순창군이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 2021년 제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백신접종 및 생활방역 등 공공업무 등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위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군은 제1차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군민 42명을 선발해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참여자들은 백신접종센터에서 원활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복지센터 등 관내 공공 이용시설에서 출입자 발열 체크와 환경을 정비하는 일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 선발하고 고용 여건 및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시 연령과 전산능력 등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시간당 8,720원의 임금이 적용되며 4대 보험 가입



및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도 부여된다. 근로시간 주 20~40시간으로 사업은 9~12월 기간 중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사업 신청서와 개인정보 정보 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업별 접수처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에 있는 사업별 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군은 사업별 자격요건 및 근로능력, 재산·소득액, 취업취약계층 여부 등 심사를 거쳐 참여자를 선발하고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선수기자

여수시 중앙동, “장군도 기운 받아”, 섬박람회 성공개최 기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성공개최! 성공개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중앙동 주민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여수시 중앙동주민센터는 지난 17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기원기를 총무동으로부터 전달받는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섬섬여수 세계로 3대 시민운동 총무동-중앙동 실천본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양 본부장들의 축사, 실천기 전달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8색 16개 배너를 힘차게 흔드는 퍼포먼스를 보여줘 지나가던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참여자들의 힘찬 구호 제창으로 섬박람회 성공개최에 대한 결의를 다졌

이남출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광한루원의 봄



바래봉 철쭉

단양군, 민선7기 촘촘한복지망구축 '눈길'



충북 단양군이 민선7기 선도적인 복지 정책을 통해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며, 주민 행복기반을 높여 눈길을 끈다.

단양군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과 수해피해 발생으로 주민 안전이 위협 받음에 따라 민생에 총력을 기울여 생활안정 및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포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해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 40억원과 8개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사업을 통해 주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며,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는 신속한 임시보호시설 지원, 자원봉사자 배치, 후원금품 배부 등으로 수해의 아픔이 빠르게 치유될 수 있도록 했다.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년층이 30%를 넘어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단양군은 어르신 복지정책에 남다른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왔다.

2018년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분리해 단양군노인전문복지관을 개관하며, 노인행복 실버도피아 조성 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단양노인회관 증축, 단양 노인보금자리 기능보강 등을 통해 쾌적한 여가 환경 인프라 구축에도 힘썼다.

기초연금, 장수·효도수당 등 지급과 4종의 자립기반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단양안심콜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으로 독거노인들의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도내 처음 실시한 단양안심콜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이 겪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대처방안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 등 가족들에게 가족의 안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안심장치

를 구축하는 데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7월 초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참가한 단양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 어워드'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는 천안문화재단과 이번 박람회에서 천안흥타령춤축제와 음면동 지역 축제를 홍보하며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박람회 전략으로 두각을 드러냈다. 천안흥타령춤축제 VR체험, 흥이춤이 포토존 체험, 천안시립흥타령풍물단 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눈길을 끌었으며, 천안의 역사유물과 천안 명물 호두과자의 역사를 담은 부스를 설치해 관람객들에게 '역사문화도시' 천안과 '빵의 도시' 천안을 널리 홍보했다.

시는 천안문화재단과 이번 박람회

에서 천안흥타령춤축제와 음면동 지역 축제를 홍보하며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박람회 전략으로 두각을 드러냈다. 천안흥타령춤축제 VR체험, 흥이춤이 포토존 체험, 천안시립흥타령풍물단 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눈길을 끌었으며, 천안의 역사유물과 천안 명물 호두과자의 역사를 담은 부스를 설치해 관람객들에게 '역사문화도시' 천안과 '빵의 도시' 천안을 널리 홍보했다.

이외에도 굿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매포 복지목욕탕 건립과 단양군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상이군경 및 고령제 전우 목욕비 지원 등을 통해 보다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선7기 지난 3년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향상을 위해 선도적인 복지정책 마련에 힘써왔다"며, "장기화된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모두가 더 행복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 단양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연세대학교 원주 LINC+사업단과 업무 협약식 가져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세대학교 원주LINC+사업단은 지난 17일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적 가치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의 공동노력으로 양양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함이다.

또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양양군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

고 지역 사회에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생활 여건 개선을 도모하는데 협력할 예정이다.

안선민 양양군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식으로 양양군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LINC+사업단과 함께 협력하는 도시 재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꾸준한 협력을 통해 좋은 결실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천안시, 새로운 고품격 문화도시가 현실로!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 이뤄내... 시민 삶의 질 향상

천안시가 천안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이루고자 '고품격 문화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정 개혁을 나선 이후, 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시는 문화예술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충, 문화예술 공간 제공을 비롯해 비대면 공연 등으로 시민문화 감성을 충족하고 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천안문화재단이 문화예술진흥기금 100억 원을 9년 만에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100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문화예술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7월 초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참가한 단양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 어워드'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는 천안문화재단과 이번 박람회

에서 천안흥타령춤축제와 음면동 지역 축제를 홍보하며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박람회 전략으로 두각을 드러냈다. 천안흥타령춤축제 VR체험, 흥이춤이 포토존 체험, 천안시립흥타령풍물단 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눈길을 끌었으며, 천안의 역사유물과 천안 명물 호두과자의 역사를 담은 부스를 설치해 관람객들에게 '역사문화도시' 천안과 '빵의 도시' 천안을 널리 홍보했다.

'제37회 천안시 공예품대전'을 15



년 만에 부활을 재추진하기도 했다. 상품성, 품질수준, 디자인, 창의성이 높은 25점의 공예품을 선정해 민속공예기술을 계승 발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도 공예산업 육성과 공예품 후계양성을 위해 공예품대전을 지속할 예정이며, 입상 작가들과 지역 공예문화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문화도시 꽃을 피우기 위해 추진하는 '천안문화도시' 사업도 착각 진행 중이다. 2019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차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된 문화산업형 문화도시인 천안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동안 국비 95억 원, 도비 28억5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9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적 도시재생, 글로벌 브랜드 구축, 사회적 경

제기업 육성 등 3개 분야 11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시민자율형·농촌연계형·생활밀착형 시민제안 공모사업인 '문화적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공간 리모델링 및 지원사업인 '공간스위치', 문화독립 콘텐츠 개발지원, 문화도시 워킹그룹 운영 등을 진행 중이다.

도시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찾아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한창이다. 천안은 고려 초 왕건이 천안부를 세우며 신선했던 도시로, 천안에는 왕건 관련 지명과 역사문화유산이 다수 남아 있어 천안과 고려왕실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태조왕건을 테마로 한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 3월 태조왕건 역사기념공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며, 천흥사가 고려 초기 최

대 규모의 왕실 사찰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며 따라 앞으로 천흥사에 대한 지속적인 학술조사를 추진해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현 원도심 중앙초등학교 일대에서는 천안의 정체성을 살릴 '올드타운'을 재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 달 천안군 관아지 시굴조사를 실시한 시는 시굴조사를 통해 조선시대 관아군 관아의 규모 및 성격을 파악하고 관아 시설 재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화추관과 영남루, 외삼문 등 조선시대 천안군 옛 관아 등을 재현해 침체된 원도심을 새로운 역사문화 관광지로 탈바꿈한다.

이와 함께 천안의 문화와 서예 등 천안 문화예술이 집약된 천안문화예술센터를 원도심에 건립하고 천안의 역사와 향토문화를 알릴 수 있는 역사문화 향토전시관을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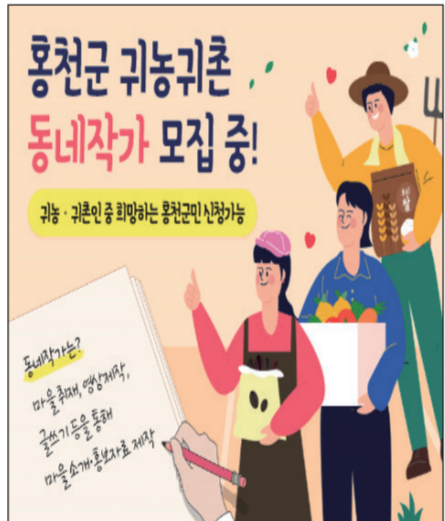
올해 봉선 흥경사 창건 1,000주년을 맞이해서는 대흥 1리·3리 주민들과 함께 국보 '봉선 흥경사 감기비' 주변에 유채꽃밭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했다. 올가을에는 메밀밭 재배단지 조성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재를 향유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가치를 함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독립기념관을 중심으로 K-아트 세계박람회를 개최해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자연스럽게 각국에 전파할 계획이다.

김원호/기자

홍천군, 귀농귀촌 동네작가를 모십니다!

귀농센터 상담의 이론을 보완할 생생한 현장체험담을 SNS를 통해 쉽게 공유



홍천군이 귀농귀촌의 생생한 정보통이 되어줄 '귀농귀촌 동네작가'를 선발한다.

귀농귀촌 동네작가는 읍·면별 1명씩 선발,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SNS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귀농귀촌 동네작가는 귀농귀촌 선배가 희망자에게 현장 경험담을 SNS 콘텐츠로 쉽게 소개하기 위한 귀농귀촌 SNS 서포터즈이다.

동네작가의 선정 기준은 홍천군민으로 전일일로부터 5년 경과하지 않은 새내기 귀농귀촌인이면 된다.

개인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활동 중이거나, 관련 분야 전공자나 경력자면 우대 받는다.

허필홍 홍천군은 "귀농귀촌에 대한 일상과 현실적인 조언으로 바른 길잡이가 되어줄 귀농귀촌 동네작가를 모십니다"라며, "지역의 생

생한 이야기를 들려줄 새내기 홍천군민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전국 유일의 귀농귀촌특구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강원도 한 달 살기 등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귀농 농업창업자금, 정착지원금, 민집수리비 등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 교육기관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 농업인대학 신규농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5년간 1만 3,110명(귀농 980명, 귀촌 1만 2,130명)이 귀농귀촌에 성공,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정동희/기자

영월문화재단 '2021 지역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모



영월문화재단(이사장 최명서)이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2021 지역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신청자격은 영월군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일반인의 문화예술 분야 아마추어 단체 및 동아리 사업 기간(2021.09~11) 내에 1회 이상 공연 또는 전시 활동이 가능한 단체(동아리)이다.

신청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청년 예술가, 생애 최초, 연례사업의 6개 분야로 총 지원금은 4천만원으로 단체(동아리)별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공고 및 접수 기간은 8월10일부터 8월20일까지이며 영월문화재단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 공지사항 메뉴에서 지원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영월문화재단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e-mail로 접수하면 된다.

심의를위한 심사를 거쳐 8월27일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선정된 팀은 정해진 기간에 교부신청을 해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월문화재단 홈페이지의 '2021 지역 생활예술 공모'를 참고하거나, 영월문화재단 문화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만식/기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두에게 이로운 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 사업추진 순항'

전체 추진율 68%, 자연과 공존하는 그린경제 분야 추진율 83%로 가장 높아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지난 17일 구정에서 모두에게 이로운 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박정현 구정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중심으로 한 현안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열악한 대면행정이 향후 추진방안의 중점 논제가 됐다.

세부사업은 완료 사업 8개, 추진 중 사업이 73개로 68%의 추진율을 보였으며, 나머지 38개 사업은 22년도 추진계획 또는 코로나19 상황 등의 여건변화에 따른 추진시기 조정 또는 대체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야별 추진율은 ▲자연과 공존하는 그린경제 분야 83% ▲지속가능한 경제체력 분야 77%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 분야 76% ▲함께 키우는 경제공동체 분야는 63% ▲풍부한 양질의 일자리 분야 62% ▲활력 넘치는 소비 분야 45%를 나타냈다.

박정현 구정장은 "대덕형 경제모델의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경제활력 회복과 뿌리가 튼튼한 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들이 한시성 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대덕경제의 자립기반이 되도록 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덕형 경제모델의 10대 핵심 과제는 ▲연중 소비분위기 확산을 위한 강력한 소비장출 ▲정책자금 핀셋 지원과 경제방역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5중 세트 ▲어린이 소비권리 보장



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경제성장엔진이자 지역문제 해결사로 등장한 대덕e로움의 플랫폼 기능 강화 ▲상권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덕형 동네상권 조성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대덕형 일자리 창출 ▲주민참여형 탈탄소경제 구축 ▲공정생태관광자원과 연계한 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지원과 경제체력 강화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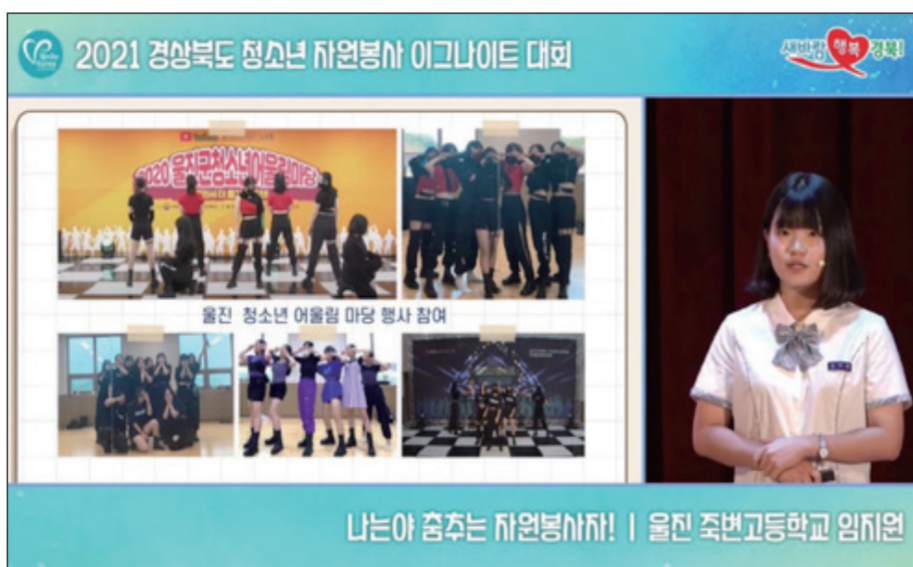
고정화/기자

울진군, "2021 경상북도 청소년 자원봉사 이그나이트대회" 죽변고 임지원 학생 대상 수상

안병용 의정부시장,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 수상

울진군은 지난 14일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 2021 경상북도 청소년 자원봉사 이그나이트대회에서 죽변고 3학년 임지원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 전했다.

'불을 붙이다'라는 뜻의 이그나이트는 발표자가 5분간의 한정된 시간 내 20장의 슬라이드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진솔한 자원봉사 이야기를 직접 발표하며 자원봉사의 가치와 감동을 전하는 행사로서 (사)울진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섭외를 통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이그나이트 대회를 준비하였다.



서면심사를 통과한 경북도내 15명의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청중 없이 비대면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심사는 경북도내 300여명의 청중단이 경북자원봉사TV를 통해 발표 모습을 시청, 감동적인 사례에 문자투표를 한 뒤 전문가 심사점수와 합산해서 최종순위가 결정되었다.

추는 자원봉사자'라는 주제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동기부터 변화된 모습까지, 흥미진진하고 감동있는 스토리를 호소력 있게 발표하여 현장의 심사위원과 온라인으로 참여한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였다.

김덕열 센터장은 "소심했던 한 아이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소통하며 재능을 나누는 자원봉사자로 성장한 이야기가 또 다른 청소년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으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은경 복지정책과장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즐거움과 보람을 얻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대견스럽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기현/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8월 17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희망도시 의정부'를 슬로건으로 ▲전국 최초 직동·추동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등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 사업 ▲전국 최대 규모 의 그린 뉴딜사업 추진을 통한 9천 300명의 일자리 창출 ▲푸른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The Green & Beauty City 프로젝트 등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정책과 타 지자체보다 한걸음 앞서는 뛰어난 업무 추진력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26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으로 지방정부 경영성과를 심사 평가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되어 매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관 및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민간부문 지방정부 평가제도 중 가장 권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개인 부문 최고경영자상은 재산 이상의 전국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1차 공적서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 리서치 전문기관의 주민만족도 조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전문심사위원회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자치단체장을 선정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오늘 수상은 의정부시의 100년 먹거리의 완성을 함께 달려온 의정부시민과 모든 공직자들의 노력이 합쳐져 결실"이라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과 극복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지만 민선 7기 남은 임기 동안 안전하고 잘 사는 희망도시 의정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심사서

한영기/기자

하남시장에 인복지관, 발달장애인의 일상적 권익옹호를 위한 시민옹호인 '이음인' 1기 위촉

하남시장에 인복지관은 지난 7월 이웃을 옹호하는 마음을 가진 시민옹호인 '이음인' 1기 수료식 및 위촉식을 코로나19로 인해 개별로 진행했다.

'시민옹호인'이란 발달장애인과 이웃이 되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차별적 요소를 발견하고 발달장애인의 선택과 결정을 지지하며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대우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옹호해주는 사람이다.

하남시장에 인복지관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민옹호인 양성 및 활동을 위해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 4회기에 걸친 시민옹호인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양성교육은 장애에 대

한 이해,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방법, 사례를 통한 권익옹호 절차 등 발달장애인과 시민옹호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발달장애인의 일상적 권익옹호 지원을 위해 위촉된 시민옹호인 4명은 성인발달장애인 4명과 1:1로 매칭되어 월 2회 정기적인 활동을 펼친다.

민복지 관장은 "시민옹호인들의 활동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편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발판이 될 것이다"며 "하남시장에 인복지관이 일상생활에서 보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과 동행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강호/기자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 수상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이 18일 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백선아 위원장의 이번 감사장은 교

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예산 확보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받게 되었다.

이날 김남현 청장을 대신하여 감사장을 전달한 김중필 남양주남부경찰서장은 "평소 경찰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해오면서 교통안전 예산 지원 등 경찰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고 말했다.

백선아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책임지는 경찰청으로부터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남양주시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선아 위원장은 앞서 지난 4월에도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 기여'에 공로한 점이 인정되어 남양주남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한 바 있다.

최정근/기자

양평군 지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집수리 재능기부 봉사

양평군은 지난 17일 지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는 저소득 홀몸 어르신으로 방 출입 문턱이 높아 이동할 때 여러 번 넘어져 큰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협의체에서는 어르신들이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문턱을 제거하고 튼튼한 장호로 수리했다.

함곡읍 지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 위원들의 재능기부로 대상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생해주시는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후 지평면장은 "더운 날씨에 고생해주시는 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민관이 협력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수리수리 집수리', '깨끗한 우리 집', '청소년 간식 봉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성열/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 종합민원담당관 직원들과 간담회 가져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17일 오후 6시 민원 업무가 종료된 시간에 종합민원실 2층에 마련된 카페리아에서 종합민원담당관 소속 민원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원 담당자들의 건의 사항 및 고충을 청취하고, 민원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시정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민원실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항상 많은 민원인과 다양한 민원을 접하고 있는 민원실 직원들이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작은 규모로 진행됐으며, 조 시장은 늦은 시간에 불규칙하고 적극적으로 간담회에 참석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종합민원담당관에서는 매월 친절 교육을 실시하며 민원인과의 시간 및 약속 엄수, 표정이 좋은 커뮤니케이션 수단 등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 힘쓰고 있다.

최정근/기자

홍성군, 늦깎이 배움의 결실... 전국문해교육 수상의 열매 '주렁주렁'

홍성군은 18일 '전국 및 충남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과 '전국 성인문해 학습자 백일장'에서 5명의 어르신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늦깎이 배움의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전국 및 충남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의 ▲국회 교육위원장상 - 홍성읍 이갑에(76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 홍성읍 장숙자(74세), ▲충남평생교육진흥원장상 - 홍북읍 남을희(84세), '전국 성인 문해학습자 백일장' ▲장려상 - 금마면 강다영(23세) ▲장곡면 이화자(81세) 등 총5명이다.

특히 이갑에 어르신은 '서리태 한 주먹'은 문해교실에서 옥수수와 서리태 낱알로 쉼을 배우는 수업시간의 경험을 구수한 사투리와 생생한 표현으로 써내려간 작품으로, 심사위원 평가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되

어 충남에서 유일하게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 선정되었으며 점수 합산 결과 높은 점수를 얻어 이번 수상의 영광을 얻게 됐다.

유히전 교육체육과장은 "문해교육이 글만 배우는 것이 아닌 지난 세월 잃어버린 나를 찾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느낄 수 있었으며, 문해교육 학습자들이 세상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및 충남 성인문해교육 시화전'과 '전국 성인문해학습자 백일장'은 학령기 교육을 받지 못한 국민들의 문해교육 참여 확대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개최되는 참여의 장으로, 홍성군에서는 매년 문해교육 학습자들이 참여하여 수상의 영예를 안고 있다.

김원호/기자

울진해양경찰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 구명조끼 미착용 익수자 2명 무사 구조



울진해양경찰서는 17일 15시경 영덕군 오포3리 신항만 회센터 앞 해상에서 고무튜브를 이용 물놀이를 하다 너울성 파도로 인해 튜브에서 떨어진 익수자 2명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익수자 A씨(17세, 강구) 및 B씨(17세, 강구)등 2명

은 강구에 거주하는 친구 사이로 14시 44분께 오포3리 신항만 회센터 앞에서 고무튜브를 이용하여 물놀이를 하던 중 높은 너울성 파도로 튜브가 외해로 밀리다 전복되어 한명은 부근 TTP에 올라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며, 한명은 바다에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상황실로 접수되었다. 신고 접수 즉시 해경은 강구파출소 연안구조정 및 수상오토바이 현장에 급파하여 해상 표류중이던 A씨는 구조 당시 의식이 없어 구조 후 CPR을 실시하던 중 의식은 돌아와 119 구급차 이용 경주 소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

며, TTP 고립자 B씨는 건상 상 별 문제없이 무릎과 팔에 가벼운挫傷과 저체온증을 호소했다.

이들은 사고당시 15시를 기해 동해 남부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예보되어 있어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고가 2.5m로 높이 이는데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은 "아무리 강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자칫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바다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기현/기자

순천시, '한·중·일 미래융합 페스티벌' 개최

‘문화의 확장 - 생태 만물상’ 주제로 코로나 극복 염원과 미래상 담아

순천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순천시와 함께 오는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동아시아 문화도시 주간에 ‘한중일 미래융합 페스티벌’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최한다.

한중일 미래융합 페스티벌은 공동주관한 한국차위원회를 비롯하여 순천예술문화재단총연합회/한국미술협회 순천시지부, 중국 Asia Art Center와의 협업을 통해 순천문화재단이 전체 주관한 국제행사다.

이번에 열리는 페스티벌은 ‘문화의 확장 - 생태 만물상(Beyond Culture-Ecology all things)’이란 주제로 자연과 예술의 융합과 코로나19의 극복 염원과 미래상을 담은 한·중·일 210여명 작가들의 문화적 교감을 나눈 28개 전시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전시1관 「지역작가 초대전」순천의 역사와 미래에서는 지역작가 김만옥 작가, 장안순, 한임수, 위수환 작가들의 순천만의 멋진 풍광이 담긴 초연작들과 함께 순천미협 50년사, 조광훈 아트스튜디오 기획 영상전을 만날 수 있다.

전시2관 「한중일 메인 작가 초대전」 ‘생태 복원력’에서는 한국 권치규 작가의 대형 설치작품 및 일본 에



가미 에츠 초연작, 중국 차세대 영상 아티스트로 꼽히는 천시 작가와 인샤오팅 작가의 조형작품 등을 선보

인다. 전시3관 「아트와 테크의 만남」 ‘은가비’에서는 GRAYCODE, jiiiiin(조

태복,정진희), 김동현, 맹옥재, 순천대지의류연구센터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협업 등 젊은 작가들의 다양한 불거리가 기대된다.

전시4관 「동아시아 티 카니발」 ‘한중일 차 문화 교류 대회’에서는 한중일을 관통하는 공통문화 코드인 ‘차 문화’를 순천만에 풀어낼 예정이다.

전시관람은 코로나19 방역에 대비하여 공간대비 인원 제한(시간당 1회 40명)을 두고 진행될 예정으로 네이버 사전예약(‘한중일 미래융합’ 검색하여 예약페이지 이동)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순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인류가 코로나 치유의 염원을 담긴 작품들과 함께 평생 잊지 못할 사진들을 이후 세대들에게 증표로서 남겨 주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아시아문화도시는 매년 한중일 대표 도시를 선정하여 각각 공식행사 및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한중일 공동발표에 따라 한국 순천시, 중국 소흥시·둔황시, 일본 기타큐슈시 3개국 4개 도시가 공식적으로 대내외에 선포하고 행사를 진행 중이다.

김영만기자

청송군, 한여름밤의 시원한 콘서트개최



청송문화예술회관서 트로트&클래식 공연 선보여

청송군은 8월 19일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트로트&클래식) 한여름 밤의 시원한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매년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예술창작 역량 강화와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시행되는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에 청송군과 경북타악인회가 합동 공모하여 지난 5월 최종 선정돼 마련되었다.

‘한여름 밤의 시원한 콘서트’는 우수작품 레퍼토리 프로그램으로, 경북타악인회와 소프라노 마혜선, 색소포니스트 심상중, 청송군민 오케스트라가 함께 출연하며, ‘후크 온

클래식, ‘그리운 금강산’, ‘베토벤 바 이리스’ 등 다양한 클래식과 트로트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지난 6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청송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신바람 군민 오케스트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군민 수강생들이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긴 더위와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니 많은 관람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문화·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청송군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출입자 명부 작성, 발열체크, 좌석 띄워 앉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가운데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김세기기자

김해분청도자박물관, 개관 12주년 분청愛 비대면 개최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은 개관 12주년을 맞아 20~31일 ‘분청愛-김해시민과 명사와 함께하는 분청’ 전시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분청愛는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이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여름 개최하는 행사로 김해시민 40명과 김해시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 지역 명사 40명을 초대해 김해지역 도예가가 제작한 초벌 분청도자기 접시에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쓴 작품을 전시한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를 이겨내자’로 주제를 정해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응원문구와 코로나 극복의 희망 메시지가 작품 곳곳에 담겼다. 지난 2009년 5월 15일 개관한 국내

첫 분청도자 전문전시관인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은 1천757㎡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한국 전통 차사발을 형상화해 조성됐다.

박물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휴관 중이어서 박물관 SNS(인스타그램)에서 온라인 전시를 우선 진행하며 이후 단계 완화에 따라 개관 시 현장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진대엽 관장과장은 “올해는 전시 작품에 코로나 팬데믹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을 위한 응원문구와 코로나 극복을 염원하는 문구를 담았다”며 “어서 빨리 코로나 상황을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부여군, 방방곡곡 문화공감 '수상한 광대들' 공연



오는 21일 오후 5시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마루에서는 연희코미디쇼 '수상한 광대들'이 무대에 오른다.

한국문화예술회관이 주최하고 부여군(군수 박정현)과 국립부여박물관(관장 윤희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2021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중 1차 공연으로 진행된다.

2021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여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뮤지컬, 창작극, 연극 등 각종 공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비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받아 매년 추진하고 있다.

본 공연은 지난 2017년 부평풍물대축제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창작풍물대전에서 창작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20년에는 UMFT

의정부음악극축제에도 참여한 수준 있는 전통 창작극이다.

이광림 연희 창작소(대표 송태환)가 선보이는 '수상한 광대들'은 전통 연희악곡을 기반으로 '문예 Show', '어람 Show', '수상한 Show', '끝났 Show'의 4개 챕터로 구성되며, 각각 잊고, 거거리, 휘모리, 진양조 가락에 맞춰 광대들이 펼치는 춤과 노래가 어우러지는 슬랩스틱 코미디로 약 50분간 꾸며진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마스크 착용, 열 체크와 손 소독, 좌석 띄워 앉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우리 군민들에게 흥미롭고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며 “대도시에서 열리는 유명 뮤지컬이나 연극 등을 현장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농촌 지역민에게는 대중문화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서천군, 가족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공연 개최

서천군은 서천군과 극단 웅기중기가 주관하는 '2021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서 민간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가족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공연을 오는 25일 오후 7시 서천 문예의전당 대강당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선착순 200명만 관람이 가능하며 공연실황은 서천군청 공식 유튜브 채널 '유즈서천'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극단 웅기중기의 '가족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공연은 독일 작가 베르너 홀츠바르트의 베스트셀러 책을 극화한 뮤지컬로써 땅속에 사는 두더지가 어느 날 땅 위로 고개를 내밀다가 똥 세례를 받고 범인을 찾아 해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

이들의 사고력, 판단력, 관찰력을 한껏 높여줄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이번 공연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부득이 서천군민에 한해 소수의 인원만 관람할 수 있으며, 비대면·온라인 공연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며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예술계 침체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여 군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연티켓은 공연 당일 오후 12시부터 문예의 전당에서 선착순 배부(1인 2매)하며, 관련 문의는 서천군 문화예술팀으로 하면 된다.

고정화기자



서울시 북촌문화센터, 모두의 안녕을 기원하는 8월의 북촌문화요일 운영



서울시와 (사)문화다움은 8월 21일부터 4주간 나례(儺禮, 민가와 궁중에서 잡기를 쫓기 위해 베풀던 의식) 등 우리 민속 문화에 담긴 예술성과 재치를 만날 수 있는 8월의 북촌문화요일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액유를 물리치고 안녕을 염원하는 우리 민속 문화를 소재로 한 야외전시 및 체험, 누리잡지(웹진), 온라인 공연 등의 대면·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야외전시는 탈 조각가, 단청 기술자, 일러스트레이터, 무대연출가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여해, 우리 민속 문화에 담긴 영묘함에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관람은 21일부

터 9월 5일까지 북촌문화센터를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행사 기간 중 매주 토요일 북촌문화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숯대 만들기, 새끼줄에 소원 달기, 투호 체험 등을 운영하며, 모든 체험 프로그램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에서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4일(토)에는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있는 민간신앙과 전통예술을 서울한옥포털을 통해 누리잡지(웹진)로 소개한다.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의 이랑 학애사가 민화, 탈놀이, 부처 등 액(厄)을 물리치기 위한 벽사(闕邪)의 의미를 담은 민간신앙 및 전통예술의 예술성을 짚어보고, 여전히 우리의 의식과 생활 속에 남아 현대인의 일상 속에 접목되어 있는 다양한 사례와 그것의 가치 등에 대해 들려준다.

11일에는 분산탈춤, 고성오광대 탈놀이를 계승하고 있는 전통 연희팀 '무(舞)탈'의 신명나는 탈춤공연을 서울한옥포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탈놀이의 기원인 나례(儺禮)는 궁중·관아·민간에서 가면 쓴 사람들이 일정한 도구를 가지고 주문(呪文)을 외면서 귀신을 쫓는 동작을 함으로써 목은택의 잡귀를 몰아내던 의식이었다. 어려움을 유쾌하게 극복했던 선조들의 흥과 멋을 느끼며, 오늘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늑대위와 코로나를 이겨낼 재치 한 수를 배워보자.

현유주기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유치 플랫폼 빅웨이브 투자유치 사업계획 발표회(IR) 3회차 참여기업 모집

충남도, 수산물 고부가가치화 위한 기반 닦는다



2021 Biig WAVE IR 3rd ROUND 기업모집

2021.08.09 - 08.22

* 인천 최대의 투자유치 플랫폼 빅웨이브 투자유치 사업계획 발표회(IR) 참가기업 모집

평균 100억 투자 유치
평균 3회 이상의 후속미팅 추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직접투자 검토
성과: IPO준비사 선정 완료, 프리 A - 시리즈 B 라운드 투자유치 성공

모집대상	모집분야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7년 이내 (최근 3년) 유망 스타트업	스마트시티 (차량, 교통, 환경, 에너지, 포항테크, 안전, 복지, 헬스케어, 교육, AI, 등 다양한 분야)
모집기간	모집규모
2021.08.09(월)~2021.08.22(일)	4개사 4팀 (1차 서면평가 7개사 선정 / 2차 면접평가 4개사 선정) (최종선정기업 이외 평가 우수기업의 경우, 투자 퍼센트 별도 연계 예정)
지원기간	신청방법
신청기업 발표일로부터 6주 이내 (당첨에 따라 신청이 변경될 수 있음)	이메일 (2021.biigwave@gmail.com) 제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social.creativethinking.or.kr) 방문
지원내용	문의
○ 사업 컨설팅 ○ 직접 투자 ○ 기업공개 청약제 ○ 브랜딩 ○ 투자유치 지원 ○ 인턴십 ○ 후속미팅 및 투자유치	[주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032-458-5066 [문의] 사내대표팀 030-4295-1349 / 2021.biigwave@gmail.com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석준)가 '2021년도 제 3회 빅웨이브 IR(투자유치 사업계획서 발표회)'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빅웨이브는 인천지역 유망기술 벤처창업기업의 육성과 인천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만든 투자유치 플랫폼 브랜드로, 지난 4월과 7월에 개최된 바 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빅웨이브 투자유치 사업계획 발표회는 국내 주요 투자사 이외에도, 대중소기업에서 만든 CVVC(Corporate Venture Capital), 그리고 해외 파트너 기업까지 참여하며 관내 최대규모의 투자유치 사업설명회 사업으로, 지역 최고의 유니콘 탄생의 요람을 목표로 확장해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총 9개사가 참여하였고, 해당 평균 100여명의 국내외 투자인사가 참여하였으며, 참여기업은 평균 3회이상의 후속미팅이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기업중에는 IPO 주관사선정, 프리A/B라운드 투자유치 등의 우수한 성과도 달성하였다.

이번 3회차 빅웨이브는 스마트 시티를 주제로 모빌리티, 교통, 교육, 헬스케어, 소재, 친환경, 플랫폼, 인공지능, ICT 등의 7년 이내 스타트업을 대

상으로 진행한다. 공고접수는 8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로 기업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집단, 역량강화, 투자유치 설명회, 후속미팅 등이 진행되며, 센터의 직접투자검토도 진행한다.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빅웨이브 홈페이지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관내 직접투자역량을 갖춘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자체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혁신모펀드 공식운영기관 선정되어 6천억원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며, 민간에서의 적극적인 출자를 유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대중견기업, 기관등과의 네트워크를 보유하여, 유망 기업을 위한 밸류업 및 스케일업을 제공하고 있다.

김석준 센터장은 "빅웨이브는 인천 투자생태계의 중심으로,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투자사, 대중견기업과 기관 그리고 글로벌 기업까지 지역으로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투자기업의 밸류업 및 스케일업을 책임지고, 인천형 유니콘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산물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

충남도는 최근 도청에서 '수산물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도내 수산물 식품 가공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산물 클러스터란 수산물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도는 간편 식품 수요가 증가하는 소비 흐름에 맞춰 수산물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올해 추경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긴급 확보, 올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해 최종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생산·가공시설 첨단화 등 미래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환경에 맞춘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한다.

이번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도내 연안 시군이며, 주요 내용은 △국내외 수산물산업 여건 변화 및 전망 △충남 수산물산업 현황 및 잠재력 등 여건 분석 △국내외 관련 사례 및 정책 연관성 △충남 수산물 수출 가공 클러스터 입지 분석 △기반 계획 및 세부 계획 △공간 계획 △스타당성 분석 등이다.

충남형 수산물 클러스터는 전체 면적(추정) 약 2만 9700㎡에 1200억 원을 들여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물류창고,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가공시설, 수산물 연구개발(R&D)센터, 창업·보육센터, 무역지원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생산부터 가공, 유통, 수출까지 전 주기를 묶음으로 지원한다.

또 해협(HACCP) 등 국제 수준의 엄격한 품질·위생·규격 관리를 지원하는 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이날 참석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검토·수렴해 앞으로 수행할 용역의 방향과 내용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조일갑 도 해양수산국장은 "그동안 도내에는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공업체가 많지 않아 원물 공급 중심의 산지 위판을 하거나 타 시도의 대규모 가공공장을 이용하는 등 수산물 부가가치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충남의 명품 수산물로 고부가가치 창출, 수출 다각화를 이루고, 지역 수산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수산물 수출액은 사상 처음 1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도는 10년 후 연간 수산물 수출액 3억 달러 이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6년간 2000여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종남/기자

고정화/기자

하남시, 혁신통합조직(HIT)으로 '협업과제 해결'

하남시는 시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등과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하남 혁신통합조직(H.I.T)'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9년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구성됐다.

하남 혁신통합조직에는 시를 비롯해 하남경찰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문화재단, 하남시자원봉사센터, 하남교육재단이 참여했다.

지난 13일에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각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업회의를 개최, 향후 협업을

통한 해결 과제를 선정할 바 있다.

이날 선정된 해결과제는 ▲청소년 안심길 조성 ▲문화재생 프로젝트 IV 문화자원조사 ▲ESG 연계사업인 사회적 공헌사업 기관·민간협업체계 구축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하남혁신교육지구 시즌 III ▲미래학교 꿈트리 ▲다함께 줌김 등 7개다.

시 관계자는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협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매달 정기회의를 통한 각 해결 과제들의 추진상황 점검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올해 안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강호/기자



하반기에도 수출 훈풍... 경북도 7월 수출증가율 11.5%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경상북도는 올해 7월 수출액(32억 달러)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5%가 증가한 35억 달러를 기록하며 하반기 수출 훈풍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 변이 확산 등으로 우리나라 하반기 수출이 상반기와 비교해 증가세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7월 국가 수출은 55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428억 달러)과 비교해 29.6%가 증가했으며, 경북도는 올해 7월은 35억 달러를 수출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32억 달러에서 38억 달러 선을 유지하며 월평균 34.8억

달러를 수출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9월 제외)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 7월은 세계 경제와 교역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북도 주력 수출 10대 품목 가운데 6개 품목이 증가세를 보였다.

무선전화기(3억 4900만 달러, +8.0%), 평판디스플레이(1억 4900만 달러, +32.3%), TV카메라및수상기(1억 4400만 달러, +1,373.7%), 아연도관광(1억 4000만 달러, +9.7%), 자동차부품(1억 1600만 달러, +25.1%), 알루미늄조각공품(1억 1500만 달러, +41.2%) 등의 품목이

호조세를 나타내며 수출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국가별로 보면, 7월 경북 총 수출액 35억 달러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국 1위 중국이 10억 8100만 달러(+19.6%), 2위 미국 6억 4900만 달러(+30.3%), 3위 베트남 2억 1200만 달러(+6.4%), 4위 일본 1억 9900만 달러(-2.4%), 인도 5억 3300만 달러(+128.7%)를 기록했다.

경상북도는 올해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수출지원 대상 맞춤형 비대면 통상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무역사절단(15회) 파견, 화상수출상담회(19회) 개최, 온·오프라인 융합형 해외전시회(12회) 참가, 아마존과 쿠팡 등 글로벌온라인몰 입점, 해외지사화, 글로벌컨설팅 등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3000개사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지역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기업들의 뼈를 깎는 노력의 바탕 위에 이루어진 희망적인 성과"라며 "다만, 앞으로 코로나와 불확실성 상승 등의 위협요인이 계속됨에 따라 기업의 고충을 덜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강원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공공구매 가능!

Made in 강원 친환경기차! 「포트로(potro)」가 2021년 5월 18일에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구매(조달)가 가능해 졌다.

친환경 전기차 '포트로' 차량은 지난해 자동차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모든 차량 인증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양산 중이다.

현재는 롯데슈퍼,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친환경 물류배송차량으로 납품이 진행 중에 있으며, 유통·물류업체 및 택배·배달업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 판매 중에 있다.

강원도는 강원형 일자리사업 첫 모델인 포트로(POTRO) 차량에 대해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초소형 화물전기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시도, 도·시군 및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 B2G 마케팅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년 하반기, 경운기 대체 농촌 작업용, 소규모 근거리 배달용, 마트 소량 화물 운반용, 복지서비스 배달용 등 공공용 차량 등 수요기업 및 협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장 Made in 강원 'potro' 판매 촉진 행사 등 이모빌리티 사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포트로 차량 등 도내생산 제품 홍보 및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 등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동원/기자

광주 남구,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우수기관

작년 시장형 10개 사업 통해 204명 일터 제공

광주 남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시장형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남구는 18일 "지난해 관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빈곤 해소 등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인 남구 시니어클럽과 손잡고 시장형 분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5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 수행기관을 독려하기 위해 매년 복수 유형 수행기관과 단일 유형 수행기관으로 분류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남구는 남구 시니어클럽과 함께 단일 유형 수행기관 평가에 참여, 시장형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기록해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다양한 시장형 사업을 통해 관내 어르신 204명에게 안정적인 일터를 제공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선보인 시장형 분야 사업은 우리학교 갈매기 사업단을 비롯해 숲 문화 전문해설 사업단, 사직골 쉼터 봉사 사업단, 어르신 아파트 백



배 사업단, 명아주 지팡이 제작 사업단, 참기름 제조 사업단, 노대 가인 나눔 카페 사업단, 손수레 금수레 사업단 등 10개 사업이다.

이 사업에 함께한 어르신들은 소득 사업단에서 하루 평균 8시간 이내 근무하면서 1년 가량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 근로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득과 자아 실현에 나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를 불태웠다.

남구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사업에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신 남구 시니어클럽 및 어르신의 덕분이다"며 "어르신들께서 만족해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데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될 만큼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김덕용/기자

선미 'You can't sit with us' 6계단대폭상승!

선미가 케이팝 레이더(K-Pop Radar) 주간 유튜브 조회수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케이팝 퀸의 입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선미의 신곡 'You can't sit with us(유 캔트 시트 위드 어스)' 뮤직비디오는 케이팝 레이더 2021년 33주 차 집계 기간(8월 8일~8월 14일) 동안 유튜브 조회수 3천1백만 뷰를 추가하며 케이팝 레이더 주간 유튜브 조회수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지난 6일에 발매하여 32주차 주간 유튜브 조회수 차트에서 7위에 진입한 이후, 이번 33주차에 3천만 뷰 가량의 조회수를 추가하며 큰 폭으로 순위가 증가하며 1위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에 케이팝 레이더 측은 "공개 직후에 조회수가 집중되는 뮤직비디오 특성상, 발매 2주차에 1위를 기록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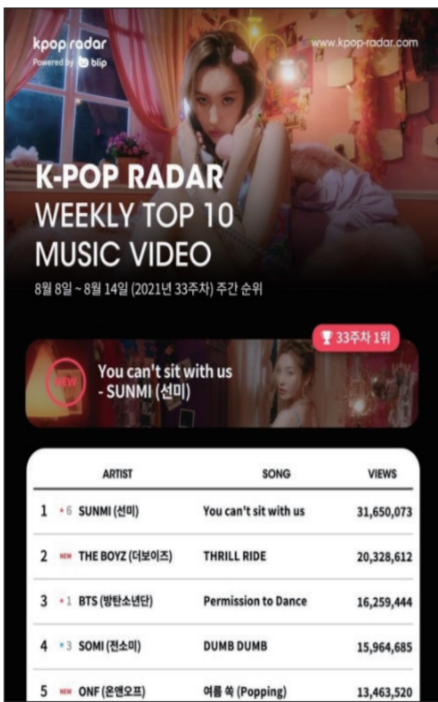
이러 "지난 2월 발매한 선미의 '꼬리'가 1천만 뷰를 달성하기까지 약 97시간이 소요된 반면, 신곡 'You can't sit with us'는 단 24시간 만에 1천만 뷰를 돌파했다"며, "이는 전작 대비 4배 가량 성장한 속도"라고 덧붙였다.

실제 'You can't sit with us'는 1억 뷰를 달성한 '가시나'를 포함하여, 선미가 발매한 모든 뮤직비디오 중 가장 빠른 조회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You can't sit with us'는 발매 10일 차 기준, 4천8백만 뷰를 넘어섰으며, 자체 최단 5천만 뷰 기록 역시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케이팝 레이더가 분석한 선미의 유튜브 분석에 따르면, 지난 30일 간 선미에게는 총 6천7백만 건의 조회수가 발생했다.

이 중 베트남이 15.3%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인기를 보였고, 그 뒤를 대한민국 9.7%, 인도네시아 7.9%, 브라질 4.2%의 인기 비중을 보였다. 국내는 물론, 베트남을 필두로 한 동남아시아와 남미에서 여전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케이팝 레이더 33주 차 주간 유튜브 조회수 차트에서는 청량한 섬머송으로 돌아온 더보이즈와 온앤오프가 각각 2위와 5위에 새롭게



진입하며 눈길을 끌었다.

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 'Permission to Dance'(1,625만 뷰)를 비롯해 전소미의 'DUMB DUMB'(1,596만 뷰), 위클리 of 'Holiday Party'(1,185만 뷰), 방탄소년단의 'Butter'(1,118만 뷰), 싸이의 '강남스타일'(804만 뷰),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762만뷰), 골든차일드의 'Ra Pam Pam(694만 뷰)'이 33주차 케이팝 레이더 주간 유튜브 조회수 차트 TOP10에 올랐다.

한편 케이팝레이더는 케이팝 팬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팬플랫폼 "내 손안의 덕메이트, 블랍"을 선보인 음악 스타트업 스페이스오디티에서 음악업계를 위하여 전체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팬덤의 규모와 변화상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무료로 오픈한 서비스다.

현재 국내 641개 팀의 실시간 뮤직비디오 조회수, 유튜브 구독자, 트위터, 인스타그램 팔로워 등의 변화량을 웹사이트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케이팝 세계지도'를 공개해 오며 화제를 만들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트위터와 공식 파트너 협약을 맺고 케이팝의 10년 성장 그래프와 현황을 발표했다.

최재은/기자

'라디오스타' 도쿄 올림픽 메달리스트 태극전사들이 온다!

오진혁, "회전근 4개 중 3개 끊어져!" 부상 투혼 고백

2020 도쿄 올림픽 메달리스트 태극전사 5인 양궁 오진혁과 김우진, 유도 안창림, 펜싱 김정환과 구본길이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올림픽 명장면 비하인드를 들려주며 예능감과 입담 빅 매치를 펼친다.

오는 18일 밤 10시 20분 방송 예정인 고평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는 도쿄 올림픽 태극전사 5인 오진혁, 김우진, 안창림, 김정환, 구본길이 함께하는 '끝까지 간다' 특집으로 꾸며진다.

2021년 여름, 시청자들은 태극전사들의 땀의 결실에 같이 기뻐했고, 투혼과 열정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올림픽이 남긴 여운이 채 가시기 전, 감동을 선물한 태극전사 5인, 양궁 남자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오진혁과 김우진, 유도 73kg급 동메달리스트 안창림, 올림픽 2연패에 성공한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김정환과 구본길이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올림픽 전후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준다.

양궁, 유도, 펜싱 등 서로 다른 종목의 특징만큼 5인 5색 확실한 캐릭터로 시선을 강탈할 예정이다. 차분함과 집중력으로 승부하는 양궁 국가대표 오진혁과 김우진은 조고조곤



진지하지만 한 방이 있는 '엑스텐 토크'로 숨겨왔던 예능감을 자랑한다.

먼저 도쿄 올림픽 양궁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대한민국 역대 최고령 금메달리스트가 된 오진혁은 결승전 당시, 국민들을 환호하게 했던 명대사 "끝"과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또 오진혁은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

기 위해 '부상 투혼'을 발휘했다고 고백한다. 어깨 회전근 힘줄 4개 중 3개가 끊어진 극심한 고통 속에 경기에 나선 것. 위기를 극복하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선 오진혁은 양궁 남자 단체 시상식에서 '인싸'에 등극한 사연, 당시 경쟁자에게 들었던 통쾌한 이야기까지 들려주며 입담을 자랑할 예정이다.

양궁 대표팀이 진지한 토크로 입담을 자랑했다면, '어벤져스' 김정환, 구본길은 순발력이 중요한 펜싱의 매력처럼 치고 빠지는(?) 토크와 넘치는 흥을 뽐내며 현장을 뒤흔든다. 극과 극 예능감을 펼친 두 종목 대표들의 토크 빅 매치가 예고돼 기대를 모은다.

특히 '펜싱 F4' 구본길은 "라디오스타"를 위해서 금메달을 뺐다"며 자칭 예능 유망주다운 깜짝 고백으로 4MC의 시선을 강탈한다. 해, 과연 어떤 이유일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어벤져스' 말형 김정환은 "펜싱은 칼싸움이자, 수 싸움"이라며 심리전에 강한 종목 부심을 드러낸다. 이에 김정환과 단단한 정서력이 필수인 양궁 말형 오진혁의 가위바위보 승부가 성사됐고, 현장에 자리한 모두가 두 종목 베테랑들의 자존심을 건(?) 대결을 마치 올림픽 경기처럼 숨죽이며 지켜봤다는 후문. 가위바위보 대결에 올림픽보다 긴장 폭발한 사연은 무엇일지 호기심을 유발한다.

도쿄 올림픽 국가대표의 극과 극 예능감 빅매치는 오는 18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유주/기자

'엑스칼리버' 세븐틴 도점 "한층 성장된 '아더'의 모습"

그룹 '세븐틴' 도점. "좋은 에너지 받아가셨으면"



세븐틴' 도점이 18일 뮤지컬 '엑스칼리버'의 '아더'역으로 무대에 오른다. 그는 1차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 좌석을 매진시키는 등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첫 공연을 앞둔 도점은 소속사 플래디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년 만에 돌아온 '검아더'에 많은 사랑과 관심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공연을 보시면서 좋은 에너지를 가득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엑스칼리버'는 아더왕 전설을 재해석한 뮤지컬이다. 고대 영국의 배경으로 왕의 숙명을 지닌 인물이 고뇌와 혼돈을 극복하고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담았다.

도점은 뮤지컬 '엑스칼리버'에서 왕의 운명을 타고난 청년이지만 성검인 엑스칼리버를 뽑은 뒤 자신의 운명 앞에 고뇌하고 성장하는 '아더' 역을 맡았다. 그는 섬세해진 안무와 화려한 액션, 시원

한 가창력으로 이목을 사로 잡는다.

지난 2019년 뮤지컬 '엑스칼리버' 초연에 함께한 도점은 새로운 매력을 선사하며 뮤지컬 배우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2년 만에 더욱 성장해서 돌아온 '검아더'는 관객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한편 '엑스칼리버'는 오는 11월7일까지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최만식/기자

영화 '싱크홀', 개봉 6일째 100만 돌파

올해 한국영화 최단기간 100만 돌파



2021년 여름 극장가에서 거침없는 흥행 질주를 하고 있는 재난 버스터 '싱크홀'이 개봉 6일째 100만 관객을 돌파,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 가장 빠르게 100만 관객 고지를 넘어서는 쾌거를 이뤘다.

'싱크홀'은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 8월 16일 오전 11시 19분, 개봉 6일째 누적 관객수 1,000,792명을 기록했다.

개봉 6일째 100만 관객을 돌파한 '싱크홀'의 기록은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 가장 빠른 뿐 아니라 지난해 8월, 개봉 4일째 100만 관객을 넘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후 한국 영화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다.

11년 만에 마련한 내 집이 지하 500m 초대형 싱크홀로 추락하며 벌어지는 재난 버스터 '싱크홀'은 개봉 이후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에게 공감과 만족도를 이끌어내며 휴가철

을 맞이한 관객들의 발걸음을 극장가로 향하게 하고 있다.

신선한 소재를 확실한 볼거리와 유쾌함으로 조화롭게 완성, 대적할 수 없는 여름 최고의 오락 영화로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입소문 흥행 중이다.

한편, '싱크홀'의 배우 차승원, 김성균, 이광수, 김해준, 권소현, 남다름은 100만 관객 돌파 감사 인증샷을 전하며 여름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싱크홀'을 응원했다.

이들은 지치고 힘든 시기에 극장을 찾아준 관객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직접 손글씨로 고마움을 전했다.

2021년 한국 영화 최단기간 100만 관객을 사로잡은 재난 버스터 '싱크홀'의 유쾌한 에너지는 지금 전국 극장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유주/기자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작 '토베 안손' 확정

제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2021년 8월 26일 ~ 9월 1일/집행위원장 박광수)가 '무민 시리즈'를 창조한 예술가 '토베 안손'의 삶을 그린 영화 '토베 안손'을 개막작으로 확정했다.

'토베 안손'은 핀란드의 대표 캐릭터이자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무민 시리즈'의 창작자인 토베 안손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영화는 그의 삶을 다루되 예술가로서의 경력과 성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삶 속에서의 관계와 그로 인한 행복과 활기, 불안과 긴장에 주목한다.

특히, 조각가인 아버지와 갈등, 운명적 사랑인 비비카 반들레르와의 연애, 신의 있는 파트너 툴리키 피에틸레와의 만남 등 토베의 삶에 영감을 준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다이나믹하고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다.

영화는 핀란드 출신 여성 감독 차이다 베리르트(Zaida Bergroth)의 다섯 번째 연출작이다. 베리르트 감독은 첫 장편 데뷔작인 '루퍼트'와 에버트 2009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플래시포워드 상'을, 영화'꽃 선'으로 2011년 시카고국제영화제에서 '골든 휴고상'을 수상하며 연출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감독은 주인공 토베의 미묘하게 변화하는 얼굴에 집중하면서 변화하는 심리를 탁월하게 그려낸다. 여성 촬영감독인 린다 바스베르그는 시종일관 흔들리는 카메라를 통해 내면의 다양한 흐름을 투박하면서도 은화하게 포착해낸다.

배우 알마 포이스티는 파티를 좋아하면서 사회의 규범에 도전하는 열정적인 예술가 토베를 사랑스럽고 품위있게 만들어냈고, 시대를 꼼꼼하게



고중하면서도 아름답게 완성된 미술과 의상은 작품의 완성도를 더욱 빛나게 한다.

황미요조 프로그래머는 "개막작은 1년을 기다려주신 관객분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이므로 매년 선정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 선정한다.

'토베 안손'은 여성예술가의 자유로운 옴과 활력의 에너지에 집중해 돌아오는 독특한 전기영화이다. 감독 뿐 아니라 촬영 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주요 스태프로 여성이 참여해 여성예술가를 보는 새로운 방식을 창조한 영화로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방향성과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어 개막작으로 선정하게 됐다"라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7일간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과 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되며 개막작으로 선정된 '토베 안손'은 8월 26일 문화비축기지 T2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영화 '비상선언', 칸 영화제 스토리 영상 최초공개

칸 영화제 현지의 뜨거운 분위기를 전하다!

영화 '비상선언'이 뜨거웠던 제 74회 칸 영화제 현지의 모습이 담긴 스토리 영상을 최초 공개했다.

'비상선언'은 사상 초유의 재난상황에 직면해 무조건적인 착륙을 선택한 비행기를 두고 벌어지는 리얼리티 항공 재난 영화다.

영화 '비상선언'이 전 세계 영화인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던 제 74회 칸 영화제 현지에서의 이야기가 담긴 스토리 영상을 최초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빼곡한 영화제 현지의 일정을 모두 참석하면서도 설렘과 여유로움을 잃지 않았던 '비상선언' 주역들의 모습이 담겼다.

영화제 공식 행사 전 상기된 한재림 감독과 송강호, 이병헌, 임시완의 모습을 통해 2년 만에 다시 개최된 칸 영화제 현지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비상선언'의 연출을 맡은 한재림 감독은 "2년 만에 열리는 칸 영화제에 이렇게 공식 초청되었다는 것이 영광스럽다"고 전하며 한국에서도 하루빨리 관객들과 만나기를 희망했다. 송강호 또한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요소들이 있다"며 '비상선언'이 관객과 만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음을 전했다.

이병헌과 임시완도 "비상선언'은 어떤 영화보다도 세계 몰입할 수 있는 영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영화고, 그런 부분들이 사랑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비상선언'을 소개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킨다.



한편 '비상선언'은 제 72회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되어 '완벽한 장르 영화의 탄생', "강렬하면서도 굉장히 현대적인 재난 영화", "경이로운 긴장감의 항공 재난 영화" 등 끊이지 않는 극찬을 받으며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기대작임을 입증했다.

'더 킹'(2017), '관상'(2013) 등을 연출해온 한재림 감독의 신작으로, 실명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임시완, 김소진, 박해준이 함께 해 완벽한 연기 앙상블을 보여줄 '비상선언'. 칸 영화제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비상선언'의 앞으로의 일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최재은/기자